

조사보고 92-03

中國 外國人直接投資誘致 政策의 變化와 韓國의 對中投資

楊平變
安鍾石

1992.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附設 地域情報센터

中國 外國人直接投資誘致 政策의 變化와 韓國의 對中投資

楊 平 燮
安 鍾 石

1992.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附設 地域情報센터



序 言

중국은 금년 들어 1988년 10월부터 만 3년 이상 계속되었던 ‘治理整頓’을 公式 終結하고 改革·開放의 심화·확대를 강조하여 오다가 10월에 열린 14全大會에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 體制’를 公式 採擇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1992년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기적 의미를 갖는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改革·開放의 새로운 물결은 中國에 대한 各國들의 경쟁적인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만, 일본, 미국 등 주요 對中 投資國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 상반기중 신규 對中 投資는 111건, 8,920만 달러를 기록, 中國은 우리 기업에게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投資 對象國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對中 投資의 양적 증가현상은 그동안 潛在市場으로만 평가되어 오던 中國의 내수시장이 顯示化된 巨大市場으로 부상함에 따라 中國市場을 둘러싼 先占競爭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인식하에 本 報告書는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誘致 政策의 변화과정과 우리나라 기업의 對中 投資의 특징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效率的인 對中 投資를 위한 구체적인 代案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本 센터 地域2室의 楊平燮, 安鍾石 두 調査役이 共同 작성한 것이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정부의 政策 立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장차 투자할 우리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작성자들의 個人意見이며 本 센터의 公式意見이 아님을 밝혀 둔다.

1992년 12월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 次

序 言	3
I. 序 論	9
II. 中國의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導入 現況	11
1.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	11
가. 地域開放 정책의 變化	11
나. 直接投資 관련제도의 정비 및 優待政策	20
다. 開放部門의 점진적 확대	21
2.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段階	27
가. 제1단계: 1978~1985	29
나. 제2단계: 1986~1989년 상반기	30
가. 제3단계: 1989년 하반기~현재	31
3. 直接投資 도입의 構造와 特徵	32
가. 投資形態別 분포	32
나. 業種別 분포	34
다. 地域別 분포	37
라. 國家別 분포	40
III. 主要國의 對中 投資 分析	42
1. 美國	42
가. 對中 투자 推移	42
나. 對中 투자의 特徵	43
2. 日本	46

가. 對中 투자 推移	46
나. 對中 투자의 特徵	48
3. 臺灣	55
가. 對中 투자 推移	55
나. 對中 투자의 特徵	61
IV. 우리기업의 對中 投資 現況과 特徵	67
1. 最近 海外直接投資의 추이와 特徵	67
2. 對中 投資의 現況과 特徵	72
가. 對中 投資 推移	72
나. 對中 投資의 特徵	77
3. 主要國과의 비교	84
4. 對中 投資의 問題點	90
V. 효율적 對中 進出을 위한 提言	93
1. 최근 對中 進出 여건의 변화와 그 시사점	93
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그 시사점	93
나. 中國의 對內外 경제여건의 변화	97
2. 對中 투자 개선방향	104
가. 對中 투자의 기본방향	104
나. 구체적 개선방안	104
VI. 結 論	119
參考資料	122
附 錄	127

表 目 次

〈표 II-1〉 中國 對外開放政策의 變遷 過程	18
〈표 II-2〉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 업종 제한 기준	22
〈표 II-3〉 中國의 外資導入 추이	28
〈표 II-4〉 기업형태별 直接投資 도입 추이	34
〈표 II-5〉 業種別 直接投資 誘致 現況	35
〈표 II-6〉 주요 鑛工業 直接投資 유치 현황(1991년도)	36
〈표 II-7〉 沿海開放地域과 經濟特區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39
〈표 II-8〉 主要國의 對中 투자 추이(1985~92.6)	41
〈표 II-9〉 其他 國家의 對中 투자	41
〈표 III-1〉 미국의 對中 투자 추이	43
〈표 III-2〉 美國 對中 投資 형태별 구성(1979~89)	45
〈표 III-3〉 日本의 對中 投資 추이	49
〈표 III-4〉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1979~91)	50
〈표 III-5〉 일본기업의 對中 투자 動機	52
〈표 III-6〉 일본기업 對中 投資의 업종별 구성	54
〈표 III-7〉 일본기업의 製造業 투자 구성(1991년 11월말 현재)	55
〈표 III-8〉 臺灣의 對中 投資 추이	57
〈표 III-9〉 지역별 對中 投資 현황	62
〈표 III-10〉 臺灣의 업종별 對中 투자 구성	65
〈표 IV-1〉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추이	68
〈표 IV-2〉 우리기업의 ASEAN 및 中國에 대한 投資 動機	70
〈표 IV-3〉 중소기업 해외투자 추이	71
〈표 IV-4〉 아세안 4개국과 中國에의 투자 추이	73
〈표 IV-5〉 우리기업의 對中 투자 추이	74

〈표 IV-6〉 최근의 韓·中 교역 추이.....	75
〈표 IV-7〉 靑島, 天津, 瀋陽의 임금수준 비교.....	77
〈표 IV-8〉 지역별 對中 直接投資 현황(1992년 6월말 현재).....	79
〈표 IV-9〉 업종별 대중 直接投資 현황(1992년 6월말 현재).....	82
〈표 IV-10〉 우리기업의 출자비율 구성.....	84
〈표 IV-11〉 주요국의 對中 經濟協力 형태(1989~91).....	85
〈표 IV-12〉 韓國, 日本, 臺灣의 아세안과 中國에 대한 투자 비율.....	86
〈표 IV-13〉 遼寧省과 山東省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	88
〈표 IV-14〉 合資企業의 出資比率別 구성.....	89
〈표 V-1〉 우리나라의 주요지역에 대한 수출 추이.....	96
〈표 V-2〉 미국의 對中 貿易推移.....	102
〈부표 1〉 中國의 외채 추이(1985~91).....	129
〈부표 2〉 省別 直接投資 導入 推移(계약 기준).....	130
〈부표 3〉 沿海開放都市와 經濟特區의 直接投資 導入 推移.....	131
〈부표 4〉 業種別 直接投資 導入 추이(계약 기준).....	133
〈부표 5〉 일본기업의 업종별 對中 投資.....	136
〈부표 6〉 대만기업의 업종별 對中 投資(1991~92.5).....	137
〈부표 7〉 遼寧省과 山東省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 추이.....	138
〈부표 8〉 中國의 10大 經濟區 구상.....	139

圖 目 次

〈도 II-1〉 中國의 開放地域.....	14
〈도 V-1〉 對中 投資의 기본방향.....	105
〈도 V-2〉 對中 투자기업의 사업환경.....	107
〈도 V-3〉 投入, 產出 部門의 資源에 대한 代案的 統制方案.....	116

I. 序 論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개혁·개방 10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거 3년동안 추진되어 왔던 ‘治理整頓’이 7기 全人大 5차 전체회의(1992. 3. 20~4. 3)에서 李鵬 총리의 ‘政府工作報告’를 통하여 공식 종결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이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경제정책을 과거 ‘安定’ 위주에서 ‘成長’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고 市場經濟體制의 擴大 導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經濟改革과 全面的인 對外開放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세계 각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년 상반기 동안 행해진 세계 각국의 對中 투자는 13,069건, 145.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0%, 220% 증가하였으며, 실제 이용 외자액 역시 130%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엄청난 潛在市場’이라는 상투적인 문구로만 표현되었던 중국시장을 두고 이제 국제간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간의 경제교류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과 5월 貿易協定과 投資保障協定의 체결에 이은 8월의 한·중 수교로 지난 1988년 이후 본격화된 양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중 수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에 가장 큰 심리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규 對中 투자는 111건, 8,920만 달러를 기록, 1991년 전체 투자실적을 초과하였으며, 중국은 우리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타 경쟁국들에게 까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 역시 새로운 對中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本 稿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과정과 도입 현황, 그리고 주요 경쟁국들의 對中투자를 우리의 그것과 함께 같이 살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效率的인 對中 投資를 위한 구체적인 戰略 代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本 報告書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두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과정과 誘致 現況을 시계열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에서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와 특징을 투자형태별,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對中 투자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對中투자 추이와 특성을 서술하였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를 살펴보았다. 1985년 對中 투자가 시작된 이래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對中 투자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對中 투자가 지니는 특성과 함께 이를 여타 경쟁국의 특성 과도 비교·분석하였다. 이 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對中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V장에서는 앞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對中 투자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對中투자의 새로운 방향과 그 구체적인 대안을 집필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對中 投資와 관련된 거시적 환경요인으로 최근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가 對中 投資와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을 살펴 보았고, 미시적 환경요인으로는 투입, 산출, 경쟁, 규제의 네가지 측면을 살펴 보았다. 對中 투자전략 개선방안은 조직과 환경간의 관계에 관한 두가지의 기존 시각, 즉 자원의존적 관점과 구조컨틴전시의 관점을 통해 제시되었다.

II. 中國의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導入 現況

1.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

중국은 1979년 이후 직접투자와 위탁가공 도입과 관련한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해 왔다. 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3단계에 걸친 개방지역의 확대, 직접투자 관련 법규의 정비, 개방의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의 점진적 확대가 바로 그 것이다.

가. 地域開放 政策의 變化

중국의 지역개방 정책은 크게 3段階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80년 廣東省과 福建省의 4개 經濟特區 설치로부터 1984년 14개 沿海開放都市의 설치로 이어지는 기간으로서, 개방지역이 點에서 線으로 확대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

두번째 단계는 沿海開放都市의 설립으로 부터 1985년도의 長江三角洲, 珠江三角洲 및 閩南三角洲의 개방과 1988년도의 山東半島 개방구, 遼東半島 개방구 및 環渤海 개방구의 개방으로 이어지는 線에서 面으로의 확대 과정이다.

세번째 단계는 1990년 5월 상해 포동개발구 종합개발 계획의 발표, 第7期 全人大 4차 전체회의(1991년 4월)에서 제기된 3沿 개방정책 천명과 그에 따른 국경지역, 내륙지역의 省都 개방으로 이어지는 全方位 개방정책의 추진이다.

■) 沿海 開放戰略

중국에서 대외개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은 廣東省과 福建省이었

다. 1979년 7월 중앙정부는 두 省의 대외활동을 포함한 경제운영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外貨收入 留保制¹⁾와 財政請負制²⁾ 같은 彈力的인 政策을 실시하였고, 1980년 8에는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經濟特區를 설치하였다.

1984년부터는 개방지역이 廣東省과 福建省의 범주를 벗어나 沿海地域의 주요 항만도시로 확대되면서 點에서 線으로 확대되었다. 1984년 4월 14개 沿海港灣都市를 연해개방도시로 지정하였는 바, 이들 연해개방도시에는 外資와 先進技術의 도입을 통한 工業都市化를 도모하기 위해 經濟技術開發區가 설치되었다.³⁾

1985년 2월에는 揚子江과 珠江, 閩南(廈門·漳州·泉州) 주변의 3개 三角洲에 沿海經濟開發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기존의 개방도시와는 달리 도시지역 외에도 縣(농촌)이 포함됨으로써 개방지역이 線에서 面으로 확대되는 轉機가 되었다. 1988년 1월 趙紫陽의 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⁴⁾에 따라 3개 三角洲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3월에는

-
- 1) 1980~84년 廣東省은 1978년을 基數로 하여 매년 무역에 의한 외화수입 증대분 중 30%를 중앙에 상납하고, 貿易外 외화수입 증대분은 모두 省내에 유보할 수 있게 되었다. 福建省은 1978년을 基數로 하여 1980~81년 무역에 의한 외화수입 증대분은 모두 省에 유보하고, 1982~84년의 증대분은 30%를 중앙에 상납하고 70%는 유보하며, 1980~84년 무역의 외화수입 증대분 모두를 유보할 수 있게 됨.
 - 2) 1980년부터 廣東省에서는 '收支區分, 定額上納, 5年間 不變'이라는 재정청부제 福建省에서는 '收支區分, 定額補助, 5年間 不變'이라는 재정청부제를 실시.
 - 3) 溫州市를 제외한 13개 개방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으며, 溫州市의 경우 1992년에 개발구 설치가 인가됨.
 - 4) 沿海經濟發展戰略은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및 아시아 NIEs 등이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외국에 이전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이를 위해 연해지구의 풍부한 저렴한 노동력, 낮은 토지사용료, 낮은 세율, 유리한 교통조건을 활용, 외자를 적극 흡수하여 委託加工과 組立加工을 발전시키고, 원재료의 공급과 제품판매를 외국에 의존하는 「兩頭在外」와 「大進大出」(많은 수입과 많은 수출)

山東半島, 遼東半島, 環渤海地區의 일부 市 및 연해개방도시의 관할 縣이 沿海開放區로 지정되었다. 또한 7월에는 海南島를 省으로 승격시켜 5번째 經濟特區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沿海開放地域은 11개 省·市, 61개 地區級 市, 43개 縣級 市, 180개 이상의 縣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방지역 면적은 전국토의 4.37%에 해당하는 42만 km²에 달하였다.

■) 開放의 新趨勢: 개방지역의 全方位化

이처럼 1980년대 點에서 線으로, 線에서 面으로 이어져온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4沿開放⁵⁾으로 특정지워지는 제3단계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1990년 上海 浦東지구를 종합적인 工業·商業·貿易·金融 중심지로 개발하여 제2의 홍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는 1991년 제7기 全人大 4차 全體會議에서의 3沿개방정책의 천명, 동년 6월의 4개 國境都市에 대한 변경무역구 지정, 연초의 덩샤오핑의 '南巡講話'와 「黨 中央 4號 文件」⁶⁾의 회람, 8월의 5개 長江沿岸都市와 15개 省都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鄧小平은 年初 남부지방을 시찰하면서 "10여 개의 새로운 홍콩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폭넓고 새로운 차원의 개방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제7기 全人大 5차 全體會議에서 행한 李鵬 총리의 '政府工作報告'와 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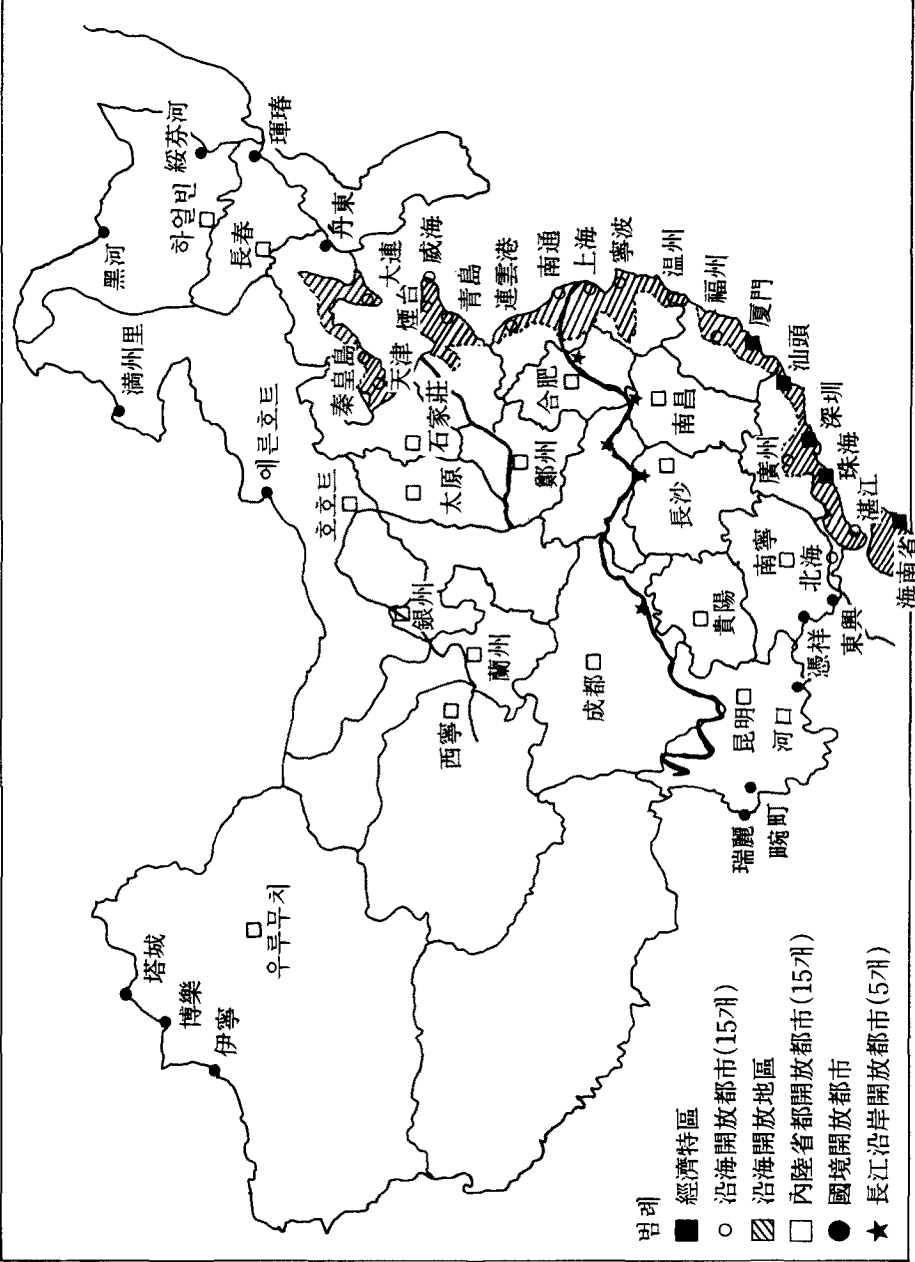
을 실시한다는 것. 이 전략을 통해 外向型 경제를 촉진함과 동시에 원재료, 시장의 제공, 경제 정보,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의 도입을 도모한다는 것임.

- 5) 4沿이란 기존의 沿海개방지역에 대한 개방 深化(沿海), 국경지역 도시의 개방(沿邊), 上海 浦東을 중심으로 하는 長江연안의 개발과 개방(沿江), 중국의 東西 및 南北을 잇는 철도와 '도로 주변 지역의 개방(沿路)을 일컫음.

『人民日報』, 1992년9월 20일자 참조.

- 6) 「개혁 가속화, 개방 확대, 경쟁을 통해 경제를 신속하게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中共 中央의 意見」으로서 5월 25일에 당의 하부기관에 회람되었음. 『大公報』, 1992년 6월 19일자.

〈그림 II-1〉 中國의 開放地域



家華 國家計劃委 주임의 「1991년도 經濟社會發展計劃의 執行 狀況과 1992년도 計劃案」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4號 文件」에서는 기존의 經濟特區, 開放都市, 沿海 開放區가 대외개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內陸地域과 國境地域을 대외에 개방함과 동시에 서비스 부문의 개방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지역 개방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가지로 축약할수 있다.

첫째는 洋浦港 개발, 특구의 확대, 保稅區의 확대로 이어지는 沿海 지역의 개방 심화이다. 3월 國務院은 海南省 洋浦港의 30여km²를 외국자본에 의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인가하였다. 또한 廣東省은 외국은행의 지점개설 허용, 市와 縣의 경제운영자율권 확대, 珠海-惠州-南沙 삼각지역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7개 經濟發展戰略 채택과 함께 經濟特區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汕頭市는 1991년 11월 特區地域을 종래의 52.6km²에서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深圳의 경우 기존 특구지역을 保稅區化하고 市 全域을 特區化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보이고 있다.

沿海地域 開放深化의 또다른 하나는 保稅區⁷⁾의 설치이다. 國務院이 1990년 9월 上海 포동지역의 外高橋지역에 보세구 설치를 처음으로 인가한 이래 작년에는 심천 經濟特區(沙頭角 보세구와 福田보세구), 大連 大窯灣 新港, 天津港, 廣州 등에 대해서도 보세구 설치를 인가하였다. 금년들어 보세구 설치가 더욱 활발해져 海南省의 洋浦지구, 青島, 蘇州(張

7) 保稅區는 자유무역구 또는 자유항과 유사한 개념으로 貿易, 倉庫, 加工, 中繼貿易, 金融, 不動産 개발업무가 가능하며, 보세구에서는 개발구와 특구에서 적용되는 우대조치가 실시된다. ① 화물의 수출입時 수출입허가증을 면제, ② 보세구내 기업은 국제무역, 中繼·通過무역을 할 수 있음, ③ 국내의 非保稅區로부터 보세구로 운반되는 화물은 통상 관세와 제품부가가치세를 면제, ④ 보세구내의 기업은 외화현금을 보유하고, 이를 운전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됨.

家港), 寧波, 廈門에 대해서도 보세구 설치를 인가함으로써 6월말 현재 10여 개의 연해개방도시에 보세구가 설치되어 있다.

둘째는 上海 浦東地區를 核으로 하는 長江(揚子江) 沿岸⁸⁾ 개방이다. 중국정부는 長江을 上海 浦東地域을 머리로, 武漢을 허리로 하고 重慶을 꼬리로 하는 '長龍'으로 발전시킨다는 長江經濟벨트의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금년 6월 북경에서 개최된 長江三角洲 沿江地域 規劃 座談會(6.24~27)에서는 上海의 浦東地區 발전을 牽引車로 하여 上海로부터 重慶에 이르는 長江 沿岸地區의 28市 8地區를 개방한다는 당의 정책결정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8월에는 國務院이 장강 연안의 重慶, 岳陽, 武漢, 九江, 蕪湖 등 5개 도시에 대해 沿海開放都市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장강 연안 항구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기존의 上海, 南通, 張家港, 鎮江, 南寧 5개항외에 최근에는 江陰, 蕪湖, 九江, 武漢을 추가로 개방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장강 연안의 개방은 1980년대의 5개 경제특구 개방과 14개 연해개방도시의 개방에 버금가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는 國境都市와 內陸地域 개방이다. 1991년 6월 國務院은 東北의 러시아, 북한과 접해있는 滿州里(內蒙古자치구), 黑河, 綏芬河(黑龍江省), 琿春(吉林省)을 개방하여 邊境貿易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가한데 이어 금년 3월에는 經濟特區에 준하는 對外貿易 관리권한을 부여하였고, 8월에는 遼寧省의 丹東市를 邊境貿易區⁹⁾로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8) 全長 6,300km에 달하는 長江은 중국의 東, 中, 西의 3대 經濟圈을 횡단하고 있고 7省과 4개 計劃單列市, 23 地區級 市, 8개 地區를 포함하고, 면적은 전국토의 3.4%를 점하고 있으며, 전국 GNP의 1/5을 차지하고 있음.

9) 邊境貿易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우대정책을 실시.

① 국경무역과 경제협력, 노무협력에 관한 권한을 시정부에 부여하고 대외경제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 1~2개의 市級 무역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가공무역과 수출지향형 공업을 적극 육성한다. ③ 경제개발을 위해 국내 및 외국투자의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④ 특히 CIS로 부터의 외자도입을 장려하고 이들 시에

新疆 위구르自治州의 塔城市, 博樂市, 伊寧市, 烏魯木齊市를 개방하였고, 금년 6월에는 南寧市, 憑祥市, 東興鎮(廣西장족자치주), 昆明市, 畹町市, 瑞麗縣, 河口縣(雲南省) 등 서남의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과 접해 있는 7개 市(縣, 鎮)을 국경도시로 개방하였다.

國境都市 개방과 더불어 內陸과 沿海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륙지역의 省都에 대한 개방도 加速化되고 있다. 이는 鐵道 또는 道路를 따른 지역개방으로서, 連運港(江蘇省)에서 시작하여 烏魯木齊(新疆위구르自治區)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東西간 철도와 京廣線(北京-廣州)과 京哈線(北京-하얼빈) 등 남북철도에 연결해 있는 내륙도시의 개방이다.

이러한 내륙지역의 개방은 黨 중앙의 「4號 文件」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동 문건에서는 내륙지역의 경제건설을 위해 九江, 蕪湖, 合肥, 南昌, 西寧 등 各省의 省都를 포함하는 30여개 도시를 대외개방도시로 추가 지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8월 國務院은 하얼빈(黑龍江省), 長春(吉林省), 호호트(內蒙古), 石家莊(河北省) 등 4개 國境 및 沿海 省의 省都和 太原(山西省), 合肥(安徽省), 南昌(江西省), 鄭州(河南省), 長沙(湖南省), 成都(四川省), 貴陽(貴州省), 西安(陝西省), 蘭州(甘肅省), 西寧(寧夏 回族 自治區), 銀州(回寧) 등 11개 省都에 대해 沿海開放都市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¹⁰⁾

대해 일정규모내의 투자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하며,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⑤ 경제협력구내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CIS와의 무역권한을 부여한다. ⑥ CIS와의 求償貿易으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工商統一稅를 50% 감면한다. ⑦ 국경경제협력구내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기타 건자재는 수입세와 생산세를 면제한다. ⑧ 8.5기간 동안 中國人民銀行은 국경경제협력구 건설자금으로 각 市에 매년 1,000만 원을 융자한다.

10) 『新華社』, 1992년 8월 13일자.

〈표 II-1〉 中國 對外開放政策의 變遷 過程

段階	年月	政策推進內容
1단계 (點→線)	1978.12	• 中國 共產黨 11期 3中全會에서 對外開放을 공식 결정, 鄧小平 체제의 성립
	1979. 6	• 第5期 全人大 第1次 全體會議 개최 “계속해서 기술도입의 임무를 확고히 행하고 국외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수출확대에 노력한다”
	7	• 「中外合資經營企業法」 공포·시행 • 外國投資管理委員會와 進出口管理委員會 설립
	8	• 廣東省과 福建省에 대외경제에 관한 自律權 부여, • 經濟特區(深圳, 珠海, 汕頭, 廈門) 설치를 결정
	10	• 外資導入과 合作事業의 창구기관으로 中國國際信托投資公司(CITIC) 발족
	1980. 4	• IMF, 中國의 代表權 회복을 결정
	5	• 世界銀行, 中國의 代表權 회복을 결정
	8	• 「廣東省經濟特區條例」全人大 常務委員會 채택
	9	• 「中外合資經營企業 所得稅法」 공포
	1981. 3	• 中國投資銀行(CIB) 설립, 12 • 「外國企業所得稅法」 공포
	1982. 1	• CITIC, 東京 자본시장에서 100億엔의 엔貨표시 私債를 발행, 1949년 이후 최초의 起債
	3	• 對外經濟貿易部 설립: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진출구관리위원회,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를 통합
	6	• 중국정부와 UNIDO 공동주최로 중국투자촉진회의 개최
	12	• 第5期 全人大 第5次 全體會議에서 新憲法 채택: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허용(제 18조)
	1983. 4	• 中國政府, 合資企業에 대한 6개항의 우대조치 발표
	5	• 全國 外資利用工作會議 개최
	8	• 國家外換管理局, 「華僑資本, 外資企業, 中外合資經營企業에 대한 外換管理施行細則」을 공포, 외환관리의 일부 완화를 발표
	9	•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를 공포, 시행
	1984. 4	• 沿海部分都市座談會에서 14개 沿海開放都市를 대외에 개방을 제기, 中央政治局 全體會議에서 확정
	5	• 制6期 全人大 第2次 全體會議: 경제특구 승인, 海南行政區의 설치를 결정, 대외 개방
	8	• 國務院, 對外經濟貿易部の 「대외무역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 보고」를 승인·政企分離(행정과 기업의 분리), 工貿結合·技貿結合의 추진, 輸出入業務代理制 실시와 경영관리 개선.
10	• 「中共 中央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에서 대외개방이 장기적인 기본 정책임을 확인	
11	• 「經濟特區 및 14개 沿海開放都市의 企業所得稅와 工商統一稅의 감면에 관한 暫定規定」 공포	

II. 中國의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導入 現況 19

(丑 계속)

2단계 (線→面)	1985. 2	• 長江三角洲, 珠江 三角洲, 閩南三角州를 새로운 대외개방지구로 지정
	5	• 國務院, 「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 공포
	1986. 1	• 「중의합자경영기업법」 개정: 합자기간 연장
	2	•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4	• 國務院, 「外資企業法」 공포
	9	• 國務院, 對外借款의 독자 도입권한을 2省 3市, 中國銀行 등에 부여키로 결정
	10	
	11	• 「外國企業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定」 공포, 시행
		• 上海, 大連 등에 外換調節센터 개설
	1987.10	• 遼東半島, 山東半島, 秦·唐·滄·渤海灣 經濟開放區를 대외개방지역을 확대
	3단계 (面→全方位)	1988. 1
4		• 「中外合作經營企業法」 공포
		• 國務院, 沿海經濟開放區의 범위를 대폭 확대
7		• 海南島를 省으로 昇格, 全省을 經濟特區로 지정
1989. 4		• 深圳 經濟特區에 省과 동등한 대외무역권한 부여
6		• 國務院, 「外國商會管理暫定規定」 공포: 외국상공회의소 설치를 인가
		• 廈門特區를 확대: 杏林, 海滄지구(126.6KM ²)를 臺灣投資區로 지정
9		• 江澤民 總書記, 건국 40주년 기념연설에서 개혁과 대외개방 견지를 강조
1990. 2		• 李鵬 總理, 經濟特區工作會議에서 대외개방정책이 불변임을 강조
4		• 上海 浦東地區의 종합개발계획 발표
		•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수정: 國유화와 국가수용 보상, 합자기간 폐지, 외국인 董事長 인정
5	• 외국인에 의한 토지개발관련 법규 제정·공포	
	• 上海 浦東地區의 外高橋 지구에 保稅區 설치를 인가	
1991. 4	• 제7기 全人大 제4차 전체회의 '국민경제사회발전 10개년계획과 8.5계획' 심의·확정: 3沿(沿海, 沿邊, 沿江) 개방정책 천명	
6	• 國務院, 변경무역구 지정(綏芬河, 黑河, 瑯瑯, 滿洲里)	
12	• 「外資企業法 施行細則」 제정·공포	
	•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 제정: 三資企業의 소득세 통일	
1992. 1	• 덩샤오핑의 '南巡講和'	
4	• 제7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 외자에 의한 洋浦港 대규모 토지개발 승인	
	• 對外經濟貿易部,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 방침 발표	
	• 國家經濟體制改革委, 7대 經濟區 구상 발표	
	• 國務院, 三峽댐 건설 승인	
5	• 「黨 中央 4號 文件」 회람: 전면적인 개방을 천명.	
6	• 長江流域三角洲 沿岸地域開發에 관한 座談會: 장강연안의 28개시 8地區를 종합적으로 개발, 개방한다는 방침 천명.	
8	• 長江沿岸·內陸開放都市 座談會: 國務院, 長江沿岸 5개 도시와 15개 省都에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실시키로 결정.	

資料: 「中國改革大辭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北京, 1992. 및 CAS, 「北方經濟」, 各月號

나. 直接投資 관련제도의 정비 및 優待政策

1979년 7월에는 대외개방정책의 상징이었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제정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直接投資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4년 후인 1983년 9월에는 「합자기업법 실시세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所得稅法을 개정하여 이윤발생후 2년간 면세, 그후 3년간 50% 감면토록 하였다.

직접투자 도입제도의 정비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86년 1월에는 국무원이 「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先進技術 도입 제품과 輸入代替 제품에 대해 국내판매를 인정함으로써 엄격히 규제해 왔던 국내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선진기술기업과 제품수출기업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감면, 토지사용료 경감, 자금의 우선적 공급 등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外國人投資 獎勵規定」을 발표함으로써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아울러 1986년 4월에는 「外資企業法」을 제정하여 독자기업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접투자 관련제도의 정비는 완결되어 가고 있다. 먼저 1990년 4월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개정하여 ①외국인 董事長 인정, ②무상물수에 대한 위협 제거, ③합자기간의 철폐 등 합자기업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아울러 5월에는 2개의 토지관련 법규를 공포하여 외국인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으로 인해 獨資企業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에는 「外資企業法 施行細則」, 그리고 1991년 4월에는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을 제정하여 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세율을 통일하였다.

다. 개방부문의 점진적 확대

■ 중국의 산업정책과 업종 제한

중국은 합자기업법 실시세칙(1983년)에서 최초로 유치업종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는 업종으로 자원개발, 제조업, 농·림·수산업, 관광·서비스업 등 6개 항목 21업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4~85년의 제1차 투자붐이 일어났던 시기에 관광·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85년 外國人投資獎勵業種, 品目, 技術目錄(39種)과 制限하는 業種, 品目目錄(12種)을 지정하여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강력히 규제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집약 산업, 원자재 생산 등 기초산업 및 자원조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내구)소비재 완제품, 기술수준이 낮고 투자기간이 짧으면서 이익률이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및 先進技術導入 效果가 극히 미미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國務院이 1986년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장려 규정」에서도 선진기술기업과 수출기업만을 우대하고 있어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업종에 대한 제한이 국내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국내 시장수요는 존재하나 생산되지 아니 하는 업종이나, 국내 수급 상황과는 관련없는 수출위주 업종, 그리고 설사 자체적인 수급이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선진기술이라는 특성으로 국내의 생산성과 생산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1989년 5월 채택한 「當面한 產業政策 要點에 관한 國務院의 決定」에 따라 直接投資 導入業種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

〈표 II-2〉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 기준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국내 시장수요에 적합하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업종	-자체 생산능력이 국내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업종	-국가안정,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저해 업종
-국의 시장수요에 적합하여 품질제고, 시장개척, 수출확대, 외화수입의 증가가 기대되는 업종	-경쟁력이 없고 수출할 수 없는 업종	-환경오염, 천연자원 파괴 유해 업종
-국내 생산성 및 생산능력 제고, 선진기술 업종	-선진기술 제공 없이 자체 외환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업종	-기타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업종
-기초 산업 업종	-중국의 전통 상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종	
	-기타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업종	

고 있다. 이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制限項目, 獎勵項目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가 장려되는 업종 및 제품으로는

- ① 농업(穀物, 棉花, 油料作物, 糖料作物, 肉類, 채소류, 造林, 速成果樹) 및 농업에 이용되는 공업제품(화학비료, 농약, 농기구 및 농기계),
- ② 경공업(製糖, 製鹽, 製紙)과 섬유공업(織物, 衣類, 化學纖維),
- ③ 사회간접자본 및 기초시설(에너지 산업, 수송, 통신, 철강, 비철금속, 기초 화학물질),
- ④ 기계, 전자 공업(대규모 전자기계설비, 전기기계·기구, 수출용 고부가가치 전자기계제품),
- ⑤ 첨단산업(항공, 우주항공, 신소재, 생물공학),
- ⑥ 수출지향형 제품(특히 수익성이 높은 완제품) 등이 포함된다.

생산이 제한되는 품목(수출용 제외)으로는

- ① 정부가 지정한 업체들 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舊式의 저급한 일반전기기계,
- ② 전력 과소비형 내구소비재(에어콘, 선풍기, 전기요리기구, 진공청소기),
- ③ 공급부족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고급 소비재(알루미늄 창틀, 건축용 알루미늄과 銅제품, 음료수용 깡통, 화학섬유 카페트),
- ④ 자연자원을 낭비하고 심각한 공해를 유발하는 舊式기술에 의한 제품(구식기술에 의한 粘結炭, 경유 및 디젤 이용 발전, 舊式기술에 의한 비철금속 제련),
- ⑤ 低級 백포도주 酒精, 저급의 인조가죽 및 인조피혁 등이 포함된다.

한편 獨資企業에 대해 중국정부는 1990년 12월에 제정된 「外資企業法 實施細則」을 통해 국내상업, 무역업, 보험업과 통신사업 분야와 관련된 독자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사업과 교통·운수업, 부동산, 신탁투자, 리스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 産業部門의 개방

최근 중국 개방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3차산업에 대한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4월 俞曉松 對外經濟貿易部 部長助理가 지금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되었던 백화점 등 국내 도·소매업, 운송, 컨설팅, 보험업, 무역업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합작투자를 시험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中共 中央 4號 文件」에서는 3차산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연해 및 내륙지역의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 금융, 보험, 백화점, 관광, 부동산 등 서비스업에의 외국기업 진출을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① 流通部門 開放

종래 중국의 상업은 國營商業, 集團商業, 個人商業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외국자본의 상업부문 진출은 전면 금지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유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국내 유통부분, 특히 商業에 대한 외자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년 6월 國務院은 上海, 廣州, 심천에서의 중외합작 형태의 도소매점과 백화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편, 전국의 주요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백화점 건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유통부분 개방정책에 따라 홍콩기업을 중심으로 동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1년 9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深圳市 沙頭角 中央街에 총 1,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합작 백화점을 설립한 야오한(八伯伴) 그룹은 上海 浦東地區의 陸家咀지역에 합작 백화점 설립을 추진중이며, 6월에는 홍콩 및 대만기의 자본을 이용하여 북경시의 최대 상업가인 王井府를 개축하여 현대적인 쇼핑센터와 백화점을 건설키로 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外國企業이 中國내에서 貿易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營業地域도 保稅區域내로 제한되는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개방정책 추진에 있어 혁신적인 조치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내 상업부분의 시범적인 개방 성과에 따라 무역업의 개방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거부되어 왔던 철도,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허용된다. 금년 7월 李森茂 鐵道部長은 철도건설 자금의 조달을 위해 외국자본의 철도건설 참여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交通部도 국내 운송망의 근대화를 위해 외국선사가 중국내에서 전액 또는 합작 형식으로 선박해운사를 개설하여 하역과 화물보관, 포장, 국내의 화객 및 화물 운송 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도로, 항만, 교량, 부두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¹¹⁾

② 金融部門 開放

중국은 金融서비스의 개선과 외자이용 루트의 다양화를 위해 금융부문의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1979년 12월 일본 수출입은행이 北京市에 사무소(상주 대표기구)를 설치한 이래 많은 외국은행 들이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에 따라 1983년 2월 「華僑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내 상주대표기구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북경시와 4개 경제특구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그후 14개 연해개방도시로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국무원은 1985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내 외자은행과 중·외합작은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은행의 지점, 합작금융회사, 전액외자 금융회사 등 營業機構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0년에는 대상지역을 上海市까지 확대하였다.

최근 中國人民銀行은 중국의 금융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인 외자금융기관 관리 조례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기존의 上海와 經濟特區에 한정되어 있던 외국은행 지점과 중외합작은행의 설립 가능 지역을 福州, 廣州, 南京, 寧波, 青島, 天津, 大連 등 7대 도시까지 확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금융부문 개방에 따라 외국은행의 중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여 1992년 6월말 현재 중국내에 설치된 외국금융기관의 사무소는 220여 사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기구도 51개 社에 이르고 있다.

③ 不動産 開放

중국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도시의 건물을 대부분 국가의 출자로 건설하여 왔기 때문에 호텔을 제외하고 외국자본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외국자본에 의한 建築分野의 活性化와 土地開發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동산 부문을 과감히 개방하고 있다. 1987년 深圳市가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유상양도를 시행한 이래 福州, 海口, 廣州, 厦門, 天津, 上海 등 연해개방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해

11) *China Daily*, 1992년 8월 5일자.

왔다. 그러나 1990년 5월 「도시지역 국유토지 出讓과 轉讓에 관한 조례」를 발표 함으로써 토지의 出讓(유상양도), 轉讓제도(再讓渡)의 실시지역을 전국의 도시지역 국유토지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홍콩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토지개발과 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분야는 工團開發, 관광호텔, 사무용 빌딩 뿐만 아니라 住宅건설에 까지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홍콩 熊谷組의 海南省 洋浦港 개발 사업, 일본의 大連 工業團地 開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연해와 내륙의 일부 지구에서는 토지의 유상양도 정책에 기초하여 토지개발구를 설치하여 외국에 분양하고 있다. 예를 들면 福建省에는 30여개소의 대규모 토지개발구(개발면적 21.3km²)가 있고, 5억 2,800만 달러의 외자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끝으로 중국정부는 觀光業 및 娛樂業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금년 9월 國務院은 전국의 8개 지역에 觀光리조트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들 區域에서 외국기업이 관광시설을 개발, 운영하는 것과 觀光內에서 제1류 합작 여행사(해외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 관광개발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世界城그룹은 금년 4월 珠海市와 합작으로 8억 달러를 투입하여 萬山관리구내에 76개섬과 3,000km² 넓이의 해역에 世界城 유락단지를 조성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또한 高爾夫場, 競馬場 등 오락시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北京, 上海외에 福州, 厦門에는 4개이상의 高爾夫장이 건설중이며 深圳에서는 대형 경마장이 건설될 수 있게 되었다.

12) 『新華社』, 1992년 6월 23일

13) 『新華社』, 1992년 9월 3일자.

2.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段階

1978년 12월에 개최된 共產黨 第 11期 中央委員會 제 3차 全體會議 (11期 3中全會)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직접투자 도입의 길이 열리게 된 이래 일련의 지역개방 정책의 추진과 제도 정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直接投資는 中國의 投資와 貯蓄갭(gap)의 補充者로서, 경영 및 생산기술의 媒介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借款의 補充者的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中國내의 요구와 플라자합의¹⁴⁾이후 일본 및 아시아 NIEs내의 産業 構造調整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1979년 이후 중국의 直接投資 도입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I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개방초기에는 직접투자 도입이 극히 미약하였으나, 1984년과 1985년에는 제1차 투자붐이 일어났다. 1986년 투자업종의 제한과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에 이어 1988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 제2차 투자붐이 일어났다. 黨 13期 3中全會(1988년 9월)이후 ‘治理整頓’과 긴축정책이 실시되면서 국내경제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9년 6월에 일어난 천안문사태 이후 西方국가들이 經濟制裁조치를 취함으로써 直接投資의 증가 추세는 급격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서방의 대중 制裁措置의 철회, 중국경제의 安定 成長基調 정착과 그에 따른 ‘治理整頓’의 종결, 年初 덩샤오핑의 ‘南巡講話’ 이후의 全面的인 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은 새로운 轉換期를 맞고 있다.

14)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선진 5개국 재무장관 회담(G5)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각국의 환율조정을 통해 지나친 달러강세를 수정하기로 합의함.

〈표 II-3〉 中國의 外資導入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총 계		대 외 차 관		직 접 투 자		기타 외국인 투자
	항목(건)	금액	항목(건)	금액	항목(건)	금액	
〈契約 基準〉							
1979~91	42,779	1,216.61	752	639.94	42,027	523.37	53.30
1979~82	949	205.48	27	135.49	922	60.10	9.89
1983	522	34.30	52	15.13	470	17.32	1.35
1984	1,894	47.91	38	19.16	1,856	26.51	2.24
1985	3,145	98.67	72	35.34	3,073	59.31	4.02
1986	1,551	117.37	53	84.07	1,498	28.34	4.96
1987	2,289	121.36	56	78.17	2,233	37.09	6.10
1988	6,063	160.04	118	98.13	5,945	52.97	8.94
1989	5,909	114.79	130	51.85	5,779	56.00	6.94
1990	7,371	120.86	98	50.99	7,273	65.96	3.90
1991	13,086	195.83	108	71.61	12,978	119.77	4.45
1992上	17,105	177.08	36	29.08	13,069	145.34	2.66
〈實際 利用 基準〉							
1979~91		796.29		527.43		233.48	35.38
1979~82		124.57		106.90		11.66	6.01
1983		19.81		10.65		6.36	2.80
1984		27.05		12.86		12.58	1.61
1985		46.47		26.88		16.61	2.98
1986		72.58		50.14		18.74	3.70
1987		84.52		58.05		23.14	3.33
1988		102.26		64.87		31.93	5.46
1989		100.59		62.86		33.93	3.81
1990		102.89		65.35		34.87	2.68
1991		115.54		68.88		43.66	3.00
1992上		77.32		42.39		33.57	1.36

資料: 『中國統計年鑑』, 1992년판. *China Latest Economic Statistics*, Aug, 1992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직접투자 유치 환경의 정비 과정,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 직접투자의 도입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직접투자

도입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제1단계: 1979~1985

이 기간은 直接投資 制度 및 環境의 정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83년까지 개방 초기 5년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연평균 278건에 12.68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석유파동의 여파로 중국내 해저유전 탐사 및 개발을 위한 대규모 合作開發이 31건, 24.2억 달러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直接投資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시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접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개방 초기의 특성, 즉 제도 및 하부구조 등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중국의 대외개방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廣東省과 福建省의 4개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홍콩계 華僑들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업형태에 있어서는 合作企業이 大宗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의 경우 건수로는 전년대비 3.9배가 늘어 났고, 이어 1985년에도 66%가 증가하여 제1차 對中 투자붐이 일어났다.¹⁵⁾ 이것은 1983년 「합자기업법 실시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14개 연해 항만도시를 開放都市로 지정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통제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好況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다.¹⁶⁾

15) 1984~85년의 경우 1979~83년에 비해 건수로는 3.5배, 합작개발을 제외하면 계약액으로는 2.1배에 달함.

16) 中國경제는 1983년 이후 고속성장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14.7%, 1985년에는 12.8%의 성장률을 기록.

나. 제2단계: 1986~1989년 상반기

이기간은 중국의 직접투자 도입 구조가 종래의 서비스業 중심에서 製造業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제1차 투자붐이 일어났던 1984~85년 기간동안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호텔, 관광,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었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극히 부진하였다. 이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일부 서비스 업종과 소비재 완성품, 낙후된 기술에 의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개방 초기의 過熱開發 현상은 외국인 直接投資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개발에 필요한 投資財의 수입 급증, 通貨量의 증대와 소비성향 상승이 소비재 수입의 급증을 불러 일으켜 중국의 外換保有高를 급격히 감소¹⁷⁾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外換枯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해외로 부터의 資本財 및 部品 도입을 위한 외환 사용까지도 제한 등 강력한 外換統制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5년 봄 이후 종래의 成長政策에서 緊縮政策으로 선회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도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영여건의 악화는 곧바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여, 1986년에는 건수와 계약액이 모두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1986년 10월 國務院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活性化와 投資構造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先進技術企業과 輸出企業에 대해 고용과 임금결정의 자율권 보장, 내수시장에 대한 선별적 허용, 외환수지균형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한 22개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1988년에는 山東半島 및 遼東半島開放區의 지정, 海南省의 경제특구 지정 등 개방지역을 沿海省·市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그결과 1987년부터 투자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1988년부터 1989년 天安門사태 이전까지 제

17) 중국의 外換保有高는 1984년의 144.2억 달러에서 1985년에는 119.1억 달러, 1986년에는 105.1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

2의 투자 붐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1986년을 기점으로 투자업종이 종래의 서비스업에서 製造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부터 1985년 기간 동안 건수기준으로 전체 직접투자의 42.7%에 불과했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986~89년 기간에는 83.5%로 높아진 반면, 호텔건설, 음식숙박업, 상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다. 제3단계: 1989년 하반기~현재

1988년 9월 중국정부는 경기과열과 급속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 철회 및 금융긴축¹⁸⁾ 등 3년간에 걸친 ‘治理整頓’정책을 실시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경제가 급속히 냉각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자금 부족 현상, 에너지 공급 규제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관련하여 호텔, 오피스 빌딩은 물론 非生産的인 항목에 대한 허가를 강력 규제 또는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발생을 이유로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높아졌고, 이는 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중국내 여건의 악화로 對中 직접투자는 1989년 하반기 이후 증가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8%, 금액으로는 2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1991년에는 12,978건(전년대비 78.4% 증가)에 契約額은 119.8

18) 중국 정부는 總需要 억제를 위해 1988년 한해 동안 14,000여건에 달하는 건설공사를 취소하였고, 은행 및 금융기관의 留保率 인상 및 가격통제를 강화하였음. World Bank, *China country Economic Memorandum Between Plan and Market*, Repdrt No. 8440-CHA, May 8, 1990.

억 달러(同 81.6% 증가)에 달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건수로는 전년동기대비 160%, 계약액으로는 2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3차 직접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投資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외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국내경제의 安定的 成長,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의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6월 미국이 MFN 연장을 결정하였고, 7월 휴스턴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제3차 엔차관 재개 선언, 그리고 북경 아시안게임 이후 EC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규제를 철회(10월)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대외관계가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全人大 5차 전체회의에서 ‘治理整頓’의 종료하고 고도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4沿 開放으로 불리워지는 전방위적인 지역개방과 개방부문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對中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直接投資 도입의 構造와 特徵

가. 投資形態別 분포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형태는 크게 三資企業이라 불리우는 合資企業, 合作企業, 獨資企業과 合作開發로 구분된다. 1985년까지는 合作企業이 대종을 이루어 전체 직접투자의 60.5%(건수 기준)를 차지하였으나, 1986년 이후 합작형태는 크게 감소한 반면, 合資企業과 獨資企業 형태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8년 이후에는 獨資企業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건수기준(누계)으로 合資企業이 58.7%, 合作企業이 26.4%, 獨資企業이 14.7%를 차지하고 있다.

獨資企業의 경우 1986년 4월 「外資企業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진¹⁹⁾하였으나, 중국측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수가 독자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趙紫陽 총서기가 1988년 1월 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에서 종래의 三資企業의 순서를 合資, 合作, 獨資에서 獨資, 合資, 合作 순으로 취급하고, 외국경영자에 의한 委託經營을 제안함으로써 獨資企業의 설립이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울러 1990년 12월에는 「外資企業法 實施細則」이 제정됨으로써 독자기업의 설립이 더욱 확대되어 1990년 이후에는 독자기업이 合作企業 數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도·소매업 등 유통부문과 부동산 개발 분야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고, 아울러 國內市場에 대한 개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獨資企業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合資와 合作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⁰⁾ 또한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을 제정하여 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세율을 통일²¹⁾함으로써 이윤규모가 작은 독자기업의 경우 소득세율이 높아짐으로써 독자기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 1986년 4월 「外資企業法」이 제정되었으나, 당초부터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했던 특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측 지분을 49%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독자기업의 설립은 극히 제한되었음.

20) 합자기업의 비중은 1991년 64.7%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65.8%, 합작기업은 13.7%에서 14.2%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獨資企業은 21.5%에서 19.9%로 낮아지고 있음.

21) 종래의 獨資企業 소득세율은 20~40%의 5단계 累進稅率이 적용되었으나, 통일세법에서는 合資, 合作, 獨資기업 모두 30%의 세율로 통일하였음. 이것은 경영이익이 작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소득세율이 상향조정되는 불리한 점도 있음.

〈표 II-4〉 기업형태별 直接投資 도입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合資經營		合作經營		獨資企業		合作開發	
	건	계약액	건	계약액	건	계약액	건	계약액
1979~91	24,684	21,314	11,089	16,950	6,180	9,255	74	3,448
1979~82	83	127	793	2,727	33	332	13	1,422
1983	107	188	330	503	15	40	18	1,001
1984	741	1,067	1,089	1,484	26	100	—	—
1985	1,412	2,030	1,611	3,496	46	46	4	360
1986	892	1,375	582	1,358	18	20	6	80
1987	1,395	1,950	789	1,283	46	471	3	5
1988	3,909	3,134	1,621	1,624	410	481	5	89
1989	3,659	2,659	1,179	1,083	931	1,654	10	204
1990	4,091	2,704	1,317	1,254	1,860	2,444	5	194
1991	8,395	6,080	1,778	2,138	2,795	3,667	10	92
1992 上	8,602	6,329	1,855	3,731	2,607	4,414	5	60

資料: 『中國統計年鑑』, 1992년판. 1992년 자료는 China Statistics Information Consultancy Service Center, *China Latest Economic Statistics*, Aug., 1992.

나. 業種別 분포

중국정부는 1985년 이후 非製造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1986년에는 國務院이 제조업 투자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22개 條로 구성된 우대조치를 실시하면서 對中 직접투자의 업종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표 II-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9~85년 기간동안 건수기준으로 전체 직접투자의 42.7%, 계약액 기준으로 42.7%에 불과하던 제조업 투자 비중이 1986년 이후 급격히 높아져 1990년에는 각각 90.6%와 81.5%를 차지하였다. 반면 1985년까지 전체 투자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호텔 건설, 음식·숙박업, 상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계속 감

소하여 1991년에는 4.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 5월 중국정부가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개발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경제의 회복과 업종제한 완화에 따라 1991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년부터 중국정부가 3차산업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의 도소매업,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천명하면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I-5〉 業種別 直接投資 誘致 現況

(단위: 건, 억 달러)

業種	1979~85		1986~88		1990		1991		1989~9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農·牧·漁·水利業	445	5.12	408	3.95	223	1.22	325	2.20	731	4.46
구성비(%)	7.0	3.4	4.2	3.3	3.1	1.8	2.5	1.8	2.8	1.8
鑛工業	2,696	39.43	7,815	64.38	6,586	53.75	11,622	95.31	23,287	193.66
구성비(%)	42.7	26.4	80.8	54.4	90.6	81.5	89.6	79.6	89.5	80.1
海洋石油開發	35	27.83	14	1.74	5	1.94	10	0.92	25	4.90
建築業	344	2.59	130	2.26	43	1.81	77	1.34	178	3.82
구성비(%)	5.4	1.7	1.3	1.9	0.6	2.7	0.6	1.1	0.7	1.6
交通運輸·通信	260	2.48	211	1.41	51	0.36	69	0.95	169	1.83
구성비(%)	4.1	1.7	2.2	1.2	0.7	0.5	0.5	0.8	0.6	0.8
不動產·公共서비스	816	43.67	672	36.18	158	4.52	401	15.04	735	24.76
구성비(%)	12.9	29.3	6.9	30.6	2.2	6.9	3.1	12.6	2.8	10.2
商業·飲食·倉庫	791	13.17	186	1.93	96	1.06	236	1.74	404	3.47
구성비(%)	12.5	8.8	1.9	1.6	1.3	1.6	1.8	1.4	1.6	1.4
기 타	934	14.93	240	6.55	111	1.30	238	2.31	483	4.66

註: 1) 전체 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임.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1978~91/92. 馬洪·孫尚清 編, 『中國經濟形勢與展望 (1991~1992)』, 中國發展出版社, 1992.

製造業 구성에 관한 공식 발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전자, 섬유, 전자재, 식품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계, 통신설비, 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고른 업종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6〉 주요 鑛工業 直接投資 유치 현황(1991년도)

(단위: 건, 만 달러,%)

업 종	투자건수	계약액	평균투자
석탄채굴	—	23	—
석유,천연가스 채굴	10 (0.1)	9,199 (1.0)	920
코크스,석탄가스 제조	12 (0.1)	1,750 (0.2)	146
석유가공업	10 (0.1)	1,171 (0.1)	117
방직공업	972 (8.4)	85,676 (8.9)	87
화학공업	645 (5.5)	50,035 (5.2)	78
기계공업	474 (4.1)	63,819 (6.6)	135
교통운송 설비 제조	82 (0.7)	14,537 (1.5)	177
전기기기 제조	557 (4.8)	55,379 (5.8)	99
전자통신 설비 제조	887 (7.6)	76,719 (8.0)	86
계량·계측기기 제조	143 (1.2)	8,265 (0.9)	58

註: ()안은 전체 제조업 직접투자 도입에 대한 비중임.

資料: 馬洪, 孫尚清 編, 『中國經濟形勢與展望(1991~92)』, p. 322.

최근 KIEP가 1979~90년간에 중국정부가 승인한 주요 합資企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 및 전자(건수 기준 17.3%), 섬유와 의류(16.0%), 고무 및 플라스틱(10.0%), 신발 및 피혁제품(5.7%), 식품(5.9%)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업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계(4.9%), 운송장비(2.9%), 철강 및 금속제품(5.4%), 비금속광물 제품(4.9%) 등 중공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특히 1991년의 경우 주요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방직공업, 전자통신

설비, 기계공업, 전기기기, 화학공업의 順으로 나타나 투자업종이 점차 직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려는 중국측의 의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 地域別 분포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보면 대부분이 北京市를 포함하여 12개 沿海省·市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접투자(1979~91)중 건수로는 91.8%, 계약액으로는 91.7%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는 건수와 계약액 모두 8%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륙지역에서의 개방 확대에 따라 吉林省과 黑龍江省 등 東北地域과 安徽省, 湖北省 등 長江연안지역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1년의 경우 내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계약액과 계약건수 모두 15%선에 이르고 있다.

1979~91년 기간중 중국정부가 인가한 직접투자를 연해의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전체 직접투자 도입 중 華南地域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건수로는 68.5%, 계약액으로는 63.5%, 華中地域이 건수로는 11.8%, 계약액으로는 13.0%, 渤海灣地域이 건수로는 15.8%, 계약액으로는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山東半島와 遼東半島의 개방과 1990년의 上海市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渤海灣地域과 華中地域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해지역에서의 지역별 구성 변화를 살펴 보면, 건수면에서는 華南地域에 대한 투자는 1985년의 89.5%에서 1991년에는 57.1%로 낮아진 반면, 華中地域은 7.2%에서 18.5%로, 渤海灣地域은 11.4%에서 24.5%로 크게 높아졌다. 계약액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동안 華南地域의

22) 鄭永祿,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11. 1992년.

경우 6% 포인트 높아진 반면, 華中地域과 渤海灣地域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최근들어 廣東省, 福建省에 대한 투자가 점차 大型化하고 있는 반면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수출지향형 업종의 투자지역이 점차 北上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직접투자의 중요한 도입창구 역할을 담당해 온 14개 沿海開放都市와 經濟特區에 대한 투자 비중은 1989년을 정점으로 하여 개방의 全方位化 추세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해개방도시와 경제특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의 53.8%에서 1991년에는 4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廣東省과 福建省의 투자는 대부분이 홍콩과 대만기업에 의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과 대만 등의 화교자본의 廣東省과 福建省의 집중 현상은 이들지역을 포괄하는 華南經濟圈의 형성 움직임이 구체화될 수 있는 직접적인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²³⁾

戰後 홍콩경제를 주도해 온 홍콩의 제조업은 1970년말 이후 ASEAN 국가들의 추격과 慢性的인 노동력 부족, 공장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勞動集約的인 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홍콩측의 要求와 중국의 開放政策이 결합되어 홍콩기업의 중국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플라자合意 이후 美달러와 연동되어 결정되던 홍콩달러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이 강화된 홍콩기업은 급증하는 海外需要를 홍콩내에서 소화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를 통해 홍콩 해외투자의 80%이상이 中國으로 집중되었으며, 중국의 지역개방이 전방위화하면서 홍콩기업의 對中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어 1991년에는 계약액이 전년에 비해 90%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중국의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힘입어 상반기중 작년 한해 동안의 투자를 상회하고 있다. 홍콩기업의 對中 投資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輕工業, 纖維, 전자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홍콩의 중국에 대한 直接投資중 40~50%

23) 日本貿易振興會, 『華南經濟圈』, 1992년.

〈표 II-7〉 沿海開放地域과 經濟特區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계약 기준)
(단위: 件, %, 백만 달러)

		1985 ¹⁾	1987	1989	1990	1991
12個 沿海省·市	건수	2,732	1,999	5,288	6,185	11,262
	(구성비)	(89.5)	(89.5)	(91.5)	(85.0)	(86.8)
	계약액	4,584	2,716	4,338	5,963	10,188
	(구성비)	(85.4)	(73.2)	(77.5)	(90.4)	(85.1)
華南地域 ²⁾ (廣東,福建, 海南,廣西)	건수	2,222	1,544	3,762	4,451	6,433
	(구성비)	(81.3)	(77.7)	(71.1)	(72.0)	(57.1)
	계약액	2,802	1,420	3,633	4,106	6,841
	(구성비)	(61.1)	(52.3)	(83.7)	(68.9)	(67.1)
華中地域 ²⁾ (上海,浙江,江蘇)	건수	198	190	660	888	2,086
	(구성비)	(7.2)	(9.5)	(12.5)	(14.4)	(18.5)
	계약액	934	437	637	794	1,484
	(구성비)	(20.4)	(16.1)	(14.9)	(13.3)	(14.6)
渤海灣地域 ²⁾ (北京,天津, 山東,遼寧,河北)	건수	312	247	866	1,217	2,761
	(구성비)	(11.4)	(12.4)	(16.4)	(19.7)	(24.5)
	계약액	848	796	705	1,063	1,863
	(구성비)	(18.5)	(29.3)	(16.3)	(17.8)	(18.3)
14個 沿海開放都市	건수	768	461	1,251	1,545	2,649
	(구성비)	(25.2)	(21.1)	(21.9)	(21.2)	(20.5)
	계약액	1,919	853	1,414	2,489	3,227
	(구성비)	(35.7)	(26.2)	(27.0)	(39.1)	(29.4)
經濟特區 ³⁾	건수	715	546	1,821	2,003	2,771
	(구성비)	(23.4)	(25.0)	(31.9)	(27.5)	(21.5)
	계약액	1,279	714	2,160	1,797	3,032
	(구성비)	(23.8)	(32.7)	(41.2)	(28.2)	(27.6)
지역전체 ⁴⁾	건수	3,053	2,185	5,720	7,273	12,906
	계약액	5,369	3,236	5,238	6,368	10,983

註: 1) 기타 유형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것임.

2) 연해지역에 대한 구성비임.

3) 海南省 포함.

4) 중앙소속 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도입을 제외한 것임.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각 년도판 및 『中國統計年鑑』, 각 년도 판.

『海南省統計年鑑』, 1992.

가 廣東省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中國 정부가 臺灣資本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1988년 「臺灣 및 華僑資本에 대한 優待措置」를 발표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는 1990년 10월 臺灣政府가 大陸에 대한 間接投資를 허용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만기업들 역시 홍콩기업과 마찬가지로 전체 對中 투자의 75%이상이 廣東省과 福建省 등 華南地域에 분포하고 있다.

라. 國家別 분포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상황을 國家別로 살펴보면 홍콩·마카오, 臺灣 등 華僑資本과 日本, 美國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9~91년간의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들 4개 지역과 국가로 부터의 직접투자 도입이 전체 직접투자 도입 중 건수로는 93.4%, 계약액으로는 85.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홍콩·마카오가 325.7억 달러로 전체 직접투자 계약액의 62.2%, 미국이 50.1억 달러로 9.6%, 일본이 39.1억 달러로 7.5%, 대만이 34.3억 달러로 6.6%를 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와 한국, 캐나다, 호주로 부터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국내경영여건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일부 국가에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 유럽국가들은 직접투자보다는 차관형태의 자본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 英國, 獨逸, 프랑스를 제외하면 직접투자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II-8〉 主要國의 對中 투자 추이(1985~92.6)
(단위: 건, 백만 달러)

	홍콩·마카오		미 국		일 본		대 만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1985	2,631 (85.6)	4,134 (69.6)	100 (3.2)	1,152 (19.4)	127 (4.1)	471 (7.9)	N.A. (-)	N.A. (-)
1988	4,771 (80.3)	3,583 (67.6)	269 (4.5)	370 (7.0)	237 (4.0)	276 (5.2)	432 (7.3)	520 (9.8)
1989	4,244 (73.4)	3,244 (57.9)	276 (4.8)	641 (11.4)	294 (5.1)	439 (7.6)	539 (9.6)	430 (7.7)
1990	5,001 (68.8)	3,943 (59.8)	357 (4.9)	358 (5.4)	341 (4.7)	457 (6.9)	1,103 (15.2)	890 (13.5)
1991	8,879 (68.4)	7,507 (62.7)	694 (5.3)	548 (4.6)	599 (4.6)	812 (6.8)	1,735 (13.4)	1,389 (11.6)
1992.上	8,704 (68.4)	10,052 (62.7)	815 (5.3)	810 (4.6)	571 (4.6)	826 (6.8)	1,702 (13.2)	1,320 (9.1)
1979~91	31,543 (75.1)	32,570 (62.2)	2,000 (4.8)	5,010 (9.6)	1,891 (4.5)	3,910 (7.5)	3,815 (9.1)	3,430 (6.6)

註: ()안은 전체 직접투자 도입에 대한 구성비임.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各號. 1991년 자료는 『國際貿易』, 1992년 5월 5일자. 1992년 자료는 *China Latest Economic Statistics*, Aug.(part 2), 1992.

〈표 II-9〉 其他 國家의 對中 투자
(단위: 억 달러, 건)

	1987	1988	1989	1990	1991	1979~91
獨 逸	132.7 (11)	47.1 (22)	158.7 (19)	0.46 (13)	558.1 (24)	10.9 (111)
英 國	25 (12)	0.42 (21)	0.32 (19)	1.19 (23)	1.32 (36)	7.3 (132)
카 나 다	26 (6)	0.40 (31)	0.42 (25)	0.15 (25)	0.31 (68)	3.2 (187)
호 주	45 (10)	0.17 (20)	0.84 (27)	0.17 (29)	0.44 (74)	3.4 (181)
싱가포르	70 (53)	1.37 (105)	1.11 (78)	1.03 (72)	1.55 (169)	9.0 (558)
泰 國	4.5 (11)	1.37 (105)	1.11 (78)	1.03 (72)	1.55 (169)	9.0 (558)

註: ()안의 숫자는 件數.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各號. 1991년 자료는 『國際貿易』, 1992년 5월 5일자.

Ⅲ. 主要國의 對中 投資 分析

1. 美 國

가. 對中 투자 推移

1972년 2월 上海 共同聲明 이후 무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던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1979년 國交 회복이후 1980년 1월 貿易協定 체결과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 부여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어 1983년부터 양국은 通商貿易分野의 關係級會議를 개최하여 무역 활성화, 산업기술협력, 미국의 對中투자 확대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1986년에는 租稅協定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中國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8년이후 3년간의 '治理整頓'정책 실시에 따른 中國내 경영여건 악화로 미국기업의 對中投資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의 天安門사태를 계기로 미국정부가 정부관리의 對中國 접촉금지, 군사관계자의 상호방문 중지, 정부와 민간차원의 무기, 부품, 기술의 판매·이전 중지, 세계은행의 신규융자에 대한 심사 연장 등의 등 강력한 制裁措置를 취함으로써 兩國關係가 급속히 냉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美國業界의 中國市場 接近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히 표명되면서 1989년 하반기에는 新規 投資契約額이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

1990년 1월 계엄령 해제로 中國내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2월에는 遼東灣 해저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輸銀融資를 재개한 데 이어, 同年 6월에는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연장하였고, 7월에 개최된 7개국 頂上會談에서 對中 經濟制裁 조치 해제가 결정되면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694건, 5.5억 달러 상당의 신규계약이 이루어졌다. 그결과 1979~91년 累計로 美國企

業의 中國에 대한 투자는 件數로는 중국 전체의 4.8%에 지나지 않지만 契約額으로는 9.6%를 차지하여 홍콩에 이어 두번째 투자국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의 지역경제화 추세와 범세계화 현상이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진출도 두드러져, 금년 상반기중에는 815건, 81억 달러의 신규투자가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표 Ⅲ-1〉 미국의 對中 투자 추이

(단위: 건, 만 달러)

	건수	契約額	1건당 투자규모
1979~83	—	85,981	—
1984	62	16,518	266.4
1985	100	115,202	1,152.0
1986	102	54,148	530.9
1987	104	36,148	347.6
1988	269	38,433	142.9
1989	276	64,052	232.1
1990	357	35,782	100.2
1991	694	54,808	79.0
1992.上	815	80,974	99.4
1979~92.上	2,815	582,046	206.8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各年版

『國際貿易』, 1992년 9월 8일

나. 對中 투자의 特徵

미국 기업 對中 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국 진출의 목적을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동기로 인해 미국기업의 투자는 多國籍企業의 진출, 다양한 업종 분포, 거대도시에서의 집중, 合資企業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投資分野의 多樣性

미국 기업의 對中 투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따라서 투자업종도 천연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육성분야 즉 자원개발, 화학, 전자, 하이테크 메디컬(제약 포함) 부문과 중국의 저임금과 미국의 자본 및 유통채널상의 이점이 결합된 경공업 분야(신발, 완구, 피혁 제품, 의류 등)로 대별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호텔, 기타 부동산 사업, 석유개발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설비 및 서비스 공급, 수출형 경공업제품 가공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6년 중국정부가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래 전자, 섬유, 농산품 및 식품가공, 화학제품, 소비재 등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製造業에 대한 投資比率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측의 투자분야 변화에 따라 1건당 평균 투자규모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1992년 6월말 현재 미국기업의 1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207만 달러로 중국 전체 직접투자의 평균투자 규모(약 121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1986년의 531만 달러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24) US-China Business Council의 1990년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하면 총 517개 對中투자기업중 약 40%인 200개 기업이 50만 달러이하 투자 이었음.

■ 合資企業의 선호

미국기업은 투자 동기를 주로 中國市場을 공략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현지기업과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기업들은 투자기업 형태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合資企業을 선호하고 있다. 1979~89년간의 미국기업의 투자를 기업형태별로 살펴 보면 合資企業이 72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獨資企業은 66건으로 7%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近海 油田共同開發 사업은 1989년까지 중국이 유치한 전체 해양석유 개발 사업의 6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美國 對中 投資 형태별 구성(1979~89)

(단위:건, 백만 달러)

企業形態	件數	契約額
合資企業	724 (76.0)	1,188 (29.6)
合作經營企業	125 (13.1)	1,243 (31.0)
單獨投資企業	66 (6.9)	336 (8.4)
海底油田共同開發	37 (3.9)	1,133 (28.2)
其他(補償貿易 등)	-	144 (3.6)
合計	952(100.0)	4,011(100.0)

出處: 『中國經濟』(JETRO), 1991년 7月號, p.27.

■ 고른 지역 분포와 多國籍企業 진출

日本三菱綜合研究所²⁵⁾가 487개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업은 北京, 上海, 天津 등 대도시에 대한 투자비중이 34.5%, 廣東省, 江蘇省 등 9개 沿海 성에 대한 비중이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9%가 내륙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餘他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 三菱總合研究所編, 『中國合併企業一覽』, 1991년판. p.1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기업들은 중국의 內需市場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政治的·經濟的으로 비중이 큰 北京과 上海 등을 주로 공략하고 있으며, 直接投資에 의한 逆輸入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廣東省과 江蘇省에 대한 투자도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北京市는 중국의 수도로서 정부기관의 소재지라는 특성과 명승지를 가지고 있어 관광과 호텔, 음식서비스 업종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 지고, 上海市는 중국내 최고의 소득 도시로서 소형 컴퓨터 등 벤처기업, 기타 하이테크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廣東省과 江蘇省의 경우 홍콩, 上海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완구, 의류 등 경공업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다. 이외에 天津市 정부의 적극적인 미국기업 유치정책으로 모토로라 등 미국기업의 天津에 대한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공업 입지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遼寧省과 山東省에 대한 미국기업의 관심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미국기업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對中 投資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내 母企業의 분포가 거대한 多國籍企業으로부터 개인경영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의 20%이상이 多國籍企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대표적인 多國籍企業으로는 Continental Grain, 모토로라, GM, Coca-Cola, Pepsi, P&G 등을 들 수 있다.

2. 日 本

가. 對中 투자 推移

일본의 大藏省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2년 3년말 현재 누계기준으로 1,105건에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中國측 통계에 따르면 1991년말 현재 누계기준으로 1,995건, 41.25억 달러로 중국의

직접투자 도입 중 건수로는 4.7%, 계약액으로는 7.9%를 차지하여 홍콩, 美國에 이어 세번째 투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2년 9월 國交樹立 이래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貿易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중국에 대한 直接投資는 극히 저조하여 1974년에 최초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래 1983년 까지 27건, 7,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의 투자환경이 정비되지 않았 던 이유도 있으나 일본기업의 위험에 대한 保守的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동안 日本의 아세안 4개국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250여건에 달했으며, 미국의 對中 투자가 50여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일본기업의 對中 진출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플라자合意 이후 일본 엔貨의 인위적인 평가절상으로 인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제1차 직접투자 도입 붐이 일어 났던 1984~85년 동안에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1984년에는 건수로는 전년에 비해 13.2배가 증가한 66건에 허가액은 1억 1,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1985년에도 118건에 9,980만 달러의 투자가 허가를 받았다. 중국의 직접투자 도입이 크게 둔화되었던 1986년의 경우 중국내 전반적인 여건의 악화로 일본의 투자도 건수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허가액은 대규모 호텔건설 및 서비스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126%이상 증가하였고, 1987년에도 9억 9,300만 달러에 이르는 해양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投融資로 허가액이 12억 2,600만 달러에 달하였다.

1988년에는 양국간 投資保障協定이 체결(8월)되었고, 다게시다 訪中時 8,100억 엔에 달하는 제3차 엔차관 공여가 妥結됨으로써 日本의 對中 투자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1989년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이 크게 증가하여 1988년에는 171건(전년비 68.3% 증가)에 계약액은 2억 9,600억 달러에 달하였고, 1989년에도 천안문사태와 중국내 긴축정책의 실시로 인해 건수로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계약액에 있어서는 47.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는 건수에 있어서는 증가한 반면 금액에 있어서는 감소하였는 바, 이것은 일본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아울러 일본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의 해외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²⁶⁾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 3월과 6월에 양국간 민간차원의 투자촉진을 위한 ‘日中投資促進機構’가 상호 설립된데 이어, 11월에는 18개월만에 제3차 엔차관 중 1차분(365.1억 엔)에 대한 차관이 재개되었고, 일본 輸出入銀行의 중국에 대한 신규용자가 재개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정상을 회복되면서 1991년에는 일본의 對中 投資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는 양국간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로 江澤民 總書記의 訪日이 이루어진데 이어 금년 10월중 일본 천황이 中國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간의 협력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있어,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對中 投資의 特徵

일본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형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직접투자보다는 차관과 무역에 의한 경제교류가 主流를 이루어 왔다.²⁷⁾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일본의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기업의 對中 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1990년 일본의 총 해외투자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3.7%, 금액으로는 15.7% 감소하였음.

27) 1991년 일·中 무역액은 228억 달러로 중국 교역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円 차관액은 1991년말까지 누계액으로 1조 1,230억 엔으로 일본의 총엔차관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일본 기업의 對中 투자액은 1991년 말 현재 41억 2,380만 달러(계약액)로 중국 전체 직접투자 유치액의 7.9%에 불과함.

〈표 Ⅲ-3〉 日本의 對中 投資 추이

(단위:건, 백만 달러)

구 분	중국측 통계 (1)			대장성 통계 (2)	
	건수	계약액	실제이용액	건수	허가액
1979~83 ^{b)}	52 ^{b)}	954.9	N.A.	27	73.2
1984 ^{b)}	138	203.0	224.6	66	114.2
1985 ^{b)}	127	470.7	315.1	118	99.9
1986	94	210.4	201.3	85	226.4
1987	113	301.4	219.7	101	1,226.5
1988	237	275.8	514.5	171	296.2
1989	294	438.6	356.3	126	438.2
1990	341	457.0	503.4	165	349.0
1991	599	812.0	533.0	246	579.0
1992.上	571	826.3	247.3	—	—
1979~91	1,995	4,123.8	2,867.9	1,105	3,402

註: 1) 중국측 통계는 補償貿易을 포함. 대장성의 통계는 1974~83년분을 포함.

2) 건수는 1983년분만을 포함.

資料: (1) 『對外經濟貿易年鑑』 각 년호. 및 『國際貿易』, 1992년 9월 8일

(2)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연도는 일본 회계년도 기준.

■ 投資地域의 旋回: 對NIEs 및 ASEAN 투자의 中國으로 선회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勞動集約的 경공업 기업들은 과거 생산설비의 주요 이전 대상지역이던 NIEs 국가들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최근에는 투자대상 지역을 중국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大藏省에 신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중 NIEs에 대한 투자건수는 1987년의 53.6%에서 1991년에는 32.6%로 낮아졌다. 또한 1989년까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였던 ASEAN 4국에 대한 투자도 1990년부터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中國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 일본의 전반적인 해외투자가 저조했던 1990년에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며 1991년의 경우 아시아 전체에 대한 투자중 건수로는 19.3%, 투자액으로는 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4〉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1987~91)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국가·지역	1987		1988		1989		1990		1991	
	件數	金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ANIEs(A)	719	2,707	919	2,264	762	4,900	539	3,355	416	2,203
(A/D, %)	(53.6)	(55.6)	(52.9)	(40.7)	(44.6)	(59.5)	(36.0)	(47.6)	(32.6)	(37.1)
한 국	166	647	153	483	81	606	54	284	48	260
대 만	182	494	234	372	165	494	102	446	87	405
홍 콩	261	1,072	335	1,662	335	1,898	244	1,785	178	925
싱가포르	182	494	197	747	181	1,902	139	840	103	613
ASEAN(B)	341	1,030	628	1,966	789	2,782	759	3,242	584	3,083
(B/D, %)	(25.4)	(21.2)	(36.2)	(35.3)	(46.2)	(33.8)	(50.6)	(46.0)	(45.7)	(51.9)
인도네시아	67	545	84	586	140	631	155	1,105	148	1,193
태 국	192	250	382	859	403	1,276	377	1,154	258	807
말레이시아	64	163	108	387	159	673	169	725	136	880
필 리 핀	18	72	54	134	87	202	58	258	42	203
中國(C)	101	1,226	171	296	126	438	165	349	246	579
(C/D, %)	(7.5)	(25.2)	(9.8)	(5.3)	(7.4)	(5.3)	(11.0)	(4.9)	(19.3)	(9.8)
對아시아(D)	1,342	4,868	1,737	5,569	1,707	8,238	1,499	7,054	1,277	5,936
(D/E, %)	(29.3)	(14.6)	(28.6)	(11.8)	(25.9)	(12.2)	(25.6)	(12.4)	(28.0)	(14.3)
세계전체(E)	4,584	33,364	6,077	47,022	6,589	67,540	5,863	56,911	4,564	41,583

註: NIEs, ASEAN 4개국, 中國이 전체 對아시아 투자중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표 Ⅲ-3〉과 동일

■ 內需市場 공략형 투자.

일본 기업의 對中 투자동기를 살펴보면, 한국과 비교해 볼 때 內需市場 진출을 위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ETRO가 조사한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 동기를 살펴보면 중국 內需市場의 潛在性, 중국에서의 企業이미지 확립, 중국의 産業保護政策에 대한 대응 등 市場追求型의 투자가 전체 對中 투자의 4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원자재를 이용하기 위한 效率性 追求型 투자는 27%에 불과하여 우리기업들의 진출동기와는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円高현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수출산업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工程과 製品을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로 이전시켜 産業內·企業內 分업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시아 NIEs국가의 인건비 상승, 상대국 통화가치의 절상 등으로 생산코스트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투자되었던 勞動集約的 組立加工 業종을 중심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이 투자대상 지역을 中國으로 轉換하면서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겨냥한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沿海地域에의 집중

日本 기업들은 대부분 沿海省·市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²⁸⁾일본의 對中 투자는 上海市, 北京市, 天津市 등 3대 도시에 집중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對중국 투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經濟圈域별로는 山東省, 北京市, 天津市 등 渤海灣지역이 31.6%, 廣東省, 福建省 등 華南地域이 19.4%, 上海市, 浙江省, 江蘇省 등 華中地域이 26.9%,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東北三省지역이 14.3%로 연해지역에 있어서는 고른 分布를

28) 三菱總合研究所, 『中國合併企業一覽』, 1991.(6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표 III-5〉 일본 기업의 對中 투자 動機

투 자 동 기	① 1986년 7월	② 1989년 3월
중국시장의 잠재성	50 (27.0%)	31 (27.0%)
중국에서의 기업이미지 확립	22 (13.4%)	12 (10.4%)
중국의 산업보호정책에 대한 대응	—	8 (7.0%)
저렴한 노동력 이용	15 (9.1%)	19 (16.5%)
원재료가 풍부하고 저렴	13 (7.9%)	8 (7.0%)
중국정부 또는 기업의 요청	53 (32.3%)	23 (20.0%)
경쟁사의 진출	8 (4.9%)	4 (3.5%)
기타	4 (1.8%)	10 (8.7%)
응답 기업 수	161社(100.0%)	115社(100.0%)

資料: 1) JETRO, 『日中合并-10年の實績と解決すべき課題-』, 1991년 6월(東京).

2) JETRO, 『中國經濟』, 1990년 4월호.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 對中 투자의 7.4%에 불과하여 일본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保守性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大連市를 중심으로 遼寧省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89~91년간의 3년간 遼寧省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투자사업은 264건에 4억 7,000만 달러로 건수와 금액 모두 홍콩에 이어 두번째 투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3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인 大連開發區내의 日本工團 건설 추진으로 大連에 대한 日本企業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 기업이 大連을 중심으로 遼寧省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東北亞 經濟圈의 거점도시가 될 大連에 대한 先占이라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등 競爭國의 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製造業 투자의 증가

일본 기업의 對中 투자는 1986년까지는 大都市를 중심으로 호텔, 리

스, 레저산업 등 非製造業에 대한 투자가 大宗을 이루고 있었으나, 1987년부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製造業에 대한 투자가 건수로는 68.5%, 금액으로는 46.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88년 8월 양국간 投資保障協定の 체결에 따라 對中 투자에 대한 불안심리가 해소되었고, 일본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中小企業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최근 일본기업의 對中 투자는 중·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1건당 평균투자규모는 1989년의 348만 달러에서 1990년에는 221만 달러, 1991년에는 193만 달러로 낮아졌다. 특히 호텔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100~200만 달러의 중·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엔차관 재개와 4차 에너지 개발 차관 제공의 결정, 일본 ODA 자금지원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 지원, 자원과 환경 해결을 위한 지원, 대련공단 건설 등 양국 정부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최근에는 일부 대규모 정책 프로젝트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들면 일본 綜合商社들이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30억 달러 규모의 에틸렌 합작공장 건설(대련), LPG 수입기지 건설, 시멘트 생산공장 설립 등이 그것이다.

製造業 구성에 있어서는 전기·전자, 섬유, 식료품, 기계 등 勞動集約的인 업종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계약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제조업투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계, 섬유, 식료품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纖維産業에 대한 투자가 전체 제조업 투자의 25%를 점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이 섬유산업기지를 종래의 NIEs 및 ASEAN으로 부터 中國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외에 中國측의 요청이 큰 하이테크, 시멘트, 에너지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표 III-6〉 日本 企業 對中國 投資의 업종별 구성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업종	1987		1988		1989		1990		1991		1974~9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製造業	58	70.1	117	202.7	85	206.3	113	161.0	91	129.0	594	808
(구성비,%)	57.4	5.7	68.4	68.4	67.5	47.1	68.5	46.1	66.9	49.2	59.8	26.2
평균투자규모		1.21		1.73		2.43		1.42		1.42		1.36
非製造業	43	1,156.4	53	92.6	40	231.1	51	185.3	45	133.0	390	2,173
(구성비,%)	42.6	94.3	31.0	31.3	31.7	52.7	30.9	53.1	33.1	50.8	40.2	73.8
평균투자규모		2.69		1.75		5.78		3.63		2.96		5.57
總計	101	1,226.5	171	296.2	126	438.2	165	349.0	136	262.0	994	3,085
평균투자규모		1.12		1.17		3.48		2.11		1.93		3.10

* 大藏省의 해외투자 신고 자료이며, 1991년은 4~11월만 포함

資料: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투자형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투자형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합資企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中經濟協會가 1990년도 중국측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資企業이 240건(4.57억 달러)으로 70.4%를 차지하였으며, 단독투자가 63건(1.35억 달러)으로 18.5%, 合作企業이 37건(0.42억 달러)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에는 일본의 松下, 日立, 三洋 등 일본의 전자업체 등 多國籍企業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기업이 세계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표 Ⅲ-7〉 日本 기업의 製造業 투자 구성(1991년 11월말 현재)

	건 수	금 액	평균투자
식료품	88 (14.8)	77 (9.1)	0.87
섬유, 의류	150 (25.2)	81 (9.6)	0.54
목재, 펄프	24 (4.0)	12 (1.4)	0.50
화학	49 (8.2)	58 (6.9)	1.18
철, 비철	43 (7.2)	54 (6.4)	1.26
일반기계	38 (6.4)	116 (13.7)	3.05
전기기계	73 (12.3)	295 (34.9)	4.04
수송기계	11 (1.9)	17 (2.0)	1.55
기타	118 (19.9)	136 (16.1)	1.15
제조업	594(100.0)	846(100.0)	1.42

資料：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3. 臺 灣

가. 對中 投資 추이

1983년부터 시작된 臺灣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87년까지 80여건, 1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 7월 중국 정부가 「臺灣同胞의 投資 獎勵 規程」을 제정·공포한 이래 급격히 증가하여, 1988년 臺灣기업의 對中 투자는 435건, 5.2억 달러(계약액)에 달하였다. 1989년의 경우에도 여타 국가들의 전반적인 對中 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臺灣기업의 對中 투자건수는 오히려 539건으로 늘어 났으며,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4.3억 달러로 약 9,000만 달러 감소에 그쳐 천안문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2월 臺灣 정부가 大陸에 대한 間接投資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臺灣의 對中 투자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총 1,117건에 9.84억 달러의 투자가 中國政府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²⁹⁾ 1991년에도 1,735건, 13.89억 달러의 투자가 허가를 받아 홍콩에 이은 두번째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³⁰⁾

그러나, 중국측의 발표자료와 臺灣정부의 공식적인 투자통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臺灣 企業의 大陸에 대한 투자가 현재 대만정부가 간접투자 조차도 제한하고 있는 부문에도 상당수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¹⁾

이처럼 臺灣의 中國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은 臺灣의 국내외 경영여건의 악화와 중국의 경제건설이라는 상호간의 필요성과 쌍방간의 通商 및 投資 政策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兩岸經濟圈, 華南經濟圈, 大中華經濟圈이라는 局地的인 經濟圈 形成의 바탕으로 이어짐으로써 兩岸間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9) 臺灣정부는 1991년 9월 「大陸地區에 대한 間接投資 및 技術合作에 관한 管理方案」을 공포함과 동시에 대륙에 대한 투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6개월이 내에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에 기존의 투자사업에 대해 등기를 의무화하였음. 이에 따르면, 대만의 대륙에 대한 투자는 총 2,503건에 7.5억 달러이었음.

출처: 王政雄, “大陸投資的經營戰略”, 中華經濟研究院, (大陸投資政策與策略研討會:1991.9.17~18)자료.

30)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상반기중 대만의 대륙에 대한 투자는 1,072건(2위), 13억 2,041만 달러(2위)에 이르고 있음.

31) 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1년말 현재 經濟部에 등기된 대륙에 대한 투자 건수는 2,552건에 8.2억 달러이나, 중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3,815건, 34.3억 달러(계약기준)에 이르고 있음.

〈표 Ⅲ-8〉 臺灣의 對中 投資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中國측 자료		臺灣측 자료	
	건	허가액	건	허가액
1983~87	80	100	N.A.	N.A.
1988	435	520	N.A.	N.A.
1989	539	432	N.A.	N.A.
1990	1,117	984	2,503 ^{b)}	753.9 ^{b)}
1991	1,735	1,389	237	174.2

註: 1) 1991년 4월 8일 현재까지 중국에 기투자한 숫자임.

資料: (1) 1983~89년은 Yen Tzung-ta, "Taiwan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and Its Impact on Taiwan's Industries", *Issues & Studies*, May, 1991.

(2) 王政雄, "大陸投資的經營戰略", 中華經濟研究院, (大陸投資政策與策略研討 1991.9.17~18) 자료. 1991년은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 臺灣내 經濟與件의 악화

對內的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地價 및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臺灣기업의 생산코스트 상승을 들 수 있다. 대만의 실업률은 1985년 2.91%에서 1991년에는 1.51%로 낮아져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³²⁾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1980~90년 기간동안 勞動生産性 指數 상승율(5.8%)을 크게 상회한 연평균 10.7%의 높은 임금 상승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유자금이 대량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1988년 이후에는 地價가 폭등하여 공장부지의 확보도 극히 어려워졌다. 더우기 대만내에서 환경보호 운동의 고조되면서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32)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32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업자수는 13만명(1991년)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또한 대만에서는 고학력화·서비스경제화 경향이 두드러져 총 취업자수에서 제조업 취업자수가 점하는 비율은 1980년의 32.7%에서 1990년에는 31.9%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38.1%에서 46.3%로 높아졌음.

공업과 오염업종의 환경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臺灣經濟를 주도해 온 중소기업들의 국내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對外的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의 확대가 先進國,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NT달러는 대폭적인 평가절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역흑자에 따른 거대한 外換準備高는 국내의 대규모의 여유자금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여유자금은 국내의 제한된 증권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던가,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해외로의 유출이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국내·국내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臺灣정부는 1987년 7월 외환관리를 대폭 완화하였고, 이어 1989년 3월에는 해외투자 절차를 완화하는 등 국내자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臺灣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아시아 NIEs중 가장 먼저 외자도입에 의한 輸出主導型 工業化에 박차를 가했던 臺灣은 1960년대의 勞動集約的 산업 육성정책에서 1970년대에는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기계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1980년대에는 기계공업과 전자, 정보처리 등 하이테크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공업, 전자공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를 中國을 포함한 開途國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³³⁾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地理的 隣接性, 동일한 言語, 文字, 慣習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원자재 및 저렴한 노동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 臺灣 기업에게는 상당한 매력을 지닌 투자대상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33) 대만내 제조 기업중 18.2%가 이미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피혁업종기업의 29%, 전기·전자 업종 기업의 26%, 의류와 플라스틱업종 기업의 23%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음. 투자지역으로는 중국 21%, 미국 18%, 태국 15%, 말레이시아 12%, 홍콩 11%, 인도네시아 5% 順임. 또한 제조 기업의 36.7%가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정지역으로는 중국이 36%, 미국이 11%를 차지하고 있음.(『日本工業新聞』, 1992년 4월 6일자)

■ 兩岸間의 和解 芬圍氣 조성

이러한 대만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따라 1987년 7월 臺灣정부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大陸의 친척 방문을 허용(11월)함으로써 人的交流가 왕성해짐에 따라 투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9년 5월 臺灣의 陳履安 經濟部長이 大陸에 대한 間接投資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표명한 후, 12월에는 對中 경제교류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기구인 「海峽兩岸商務協調會」를 발족시켰다.

1990년 2월에는 臺灣 經濟部가 對中國 투자를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제3국을 경유한다는 조건하에 대륙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8월부터 中國에서 가공생산한 반제품의 間接輸入과 OEM방식에 의한 中國내 생산을 허용하였다. 특히 1990년 9월에는 「大陸地區에 대한 間接投資 및 技術合作에 관한 管理方案」을 발표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中國에 대한 間接投資를 정식으로 허용하였다.³⁴⁾ 그 이후 臺灣정부는 실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大陸에 대한 간접투자 허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臺灣 財政부가 중국내 臺灣기업들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 제3국을 통한 기업의 외화송금을 허용하였고, 3대 시중은행의 하나인 華南銀行의 홍콩주재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금년 9월에 개최된 臺灣의 大陸委員會는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潮流에 맞추어 중국과의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중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臺灣선박의 중국운항을 비롯하여 大企業의 中國 투자 허용, 제3국을 통한 中國으로의 送金 許容, 政府官吏의 中

34) ① 국방기밀, 국가안전과 관련된 산업, ② 첨단 과학 기술 산업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품, ③ 국가재정 지원으로 개발한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 ④ 기타 臺灣經濟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한 3,319개항목을 허용. 1992년 4월에는 가정용 청소기, 壓力計, 냉수 공급기 일부 전기관련 제품과 아크릴 선그라스, 양식 진주 등 잡화류 58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총 허가대상 품목은 3,737개에 이르고 있음.

國訪問 허용 등을 포함하는 367개 제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臺灣내에서 종래의 不通航, 不通信, 不通商 등 ‘三不政策’에 대해 直通航 문제를 중심으로 對大陸 접촉 완화를 轉向的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 투자한 臺灣기업의 보호를 위해 投資保障協定 체결을 법제화하였고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금지해 왔던 컴퓨터, 조선, 원자력, 항공산업 등을 포함한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臺灣의 中華航空이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들어가는 화물에 한해 수송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臺灣의 완화 움직임은 금년 8월의 韓·中間 수교에 위협을 느낀 臺灣정부가 자국기업들의 對中 투자를 더욱 과감히 장려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兩岸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은 중국측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中國國務院이 臺灣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총 22개조로 구성된 「臺灣同胞에 대한 投資 優待 規程」³⁵⁾을 발표한 이래 각 지방정부가 臺灣企業에 대한 우대조치를 속속 발표하였다. 또한 1991년 7월에는 對外經濟貿易部가 ①직접적인 쌍방교류, ②상호 이익과 호혜주의, ③다양한 형식, ④장기적인 안정, ⑤약속의 준수 등 쌍방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5개 원칙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2년 3월에는 臺灣과의 通港을 위해 福建省의 湄州島에 총 6,000만 元을 투입

35) 우대조치의 내용을 보면, 일반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차이점은 ① 조세의 감면 기간이 길고(1~3년), ② 일부 내수시장을 개방(생산제품의 30%), ③ 土地使用料의 감면 우대, ④ 재투자시 환급세율비율이 높다는 점, ⑤ 일반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장려업종에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업종의 선택의 폭이 넓은, ⑥ 기업의 채권,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 허용, ⑦ 경영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됨, ⑧ ‘臺灣商人會’의 결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등임.

廈門特區(1988년 8월), 福州(1989년 1월), 廣東省, 廣州市(1990년 5월), 汕頭特區(1990년 4월), 珠海, 北京市, 海南省, 河北省 등 대부분의 연해지역에서 우대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하여 特別港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³⁶⁾

또한 1989년 5월에 國務院의 허가를 받은 廈門市를 필두로 臺灣기업 만을 위한 ‘臺商投資區’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廈門市는 海滄工業區에 臺灣의 석유화학, 에너지, 항구건설, 운수 등 자본집약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杏林에는 경공업, 방직공업, 화학공업, 전자재 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臺商投資區를 건립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福建省은 湄州灣의 馬尾地區(福州市)와 閩南河口的 琅岐島 開發區에도 臺灣기업 투자구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만과 중국은 교류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1991년 12월에는 쌍방간 海峽兩岸經濟協助會를 설치하여 경제협력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교류여건의 개선은 福建省과 臺灣을 연결하는 兩岸經濟圈, 廣東省-홍콩-臺灣-福建省-海南省 지역을 포괄하는 華南經濟圈의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국적으로는 1991년 가을 臺灣의 蕭萬長 경제부장이 제창한 바 있는 大中華經濟圈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對中 投資의 特徵

■ 華南地域에의 집중

臺灣기업들의 對中 투자는 대부분이 廣東省, 福建省, 海南省 등 華南地域에 집중되어 있다. 臺灣 經濟部에 신고된 사업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華南地域이 건수로는 75%(1,870건), 투자액으로는 70%(5.2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華中地域이 각각 8.4%(210건), 18.5%(1.3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遼寧省을 포함한 渤海灣지역의 경우 건수로는 5.8%(145건), 투자액으로는 8.7%(0.66

36) 『新華社』, 1992년 3월 10일자.

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華南地域이 臺灣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臺灣 기업의 경우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조립·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의 기업운영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9〉 지역별 對中 投資 현황

(단위: 천 달러, %)

地 域	件數	金額	地 域	件數	金額
山東省	46	18,081	吉林省	5	2,406
北京市	30	25,029	黑龍江省	3	340
天津市	13	8,793	*하얼빈	2	100
河北省	11	3,547	湖南省	13	2,173
遼寧省	45	10,092	四川省	13	3,725
上海市	78	87,032	*重慶	7	1,622
浙江省	56	24,696	甘肅省	4	1,254
江蘇省	76	27,657	河南省	7	1,479
*南京	20	2,961	寧夏自治區	2	430
廣東省	1,208	327,899	貴州省	4	400
*深圳	379	111,682	安徽省	4	300
*廣州	149	55,996	江西省	16	7,273
*東莞	188	15,776	湖北省	15	5,418
*汕頭	39	12,040	新疆自治區	2	91
*珠海	42	11,301	雲南省	1	50
福建省	598	179,523	其他地域	189	8,046
*廈門	275	92,205	總計	2,503	753,915
*福州	119	44,903			
海南省	49	15,023			
廣西自治區	15	2,983			

註: 1991년 4월말까지 신고된 자료에 의거 작성한 것임.

資料: 大만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福建省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은 臺灣海峽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특성과 臺灣 주민의 45%가 福建省 출신일 뿐만 아니라 臺灣語가 福建省 남부의 민南語라는 특성으로 인해 血緣과 地緣에 의한 진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福建省의 경우 廈門市와 福州市에 집중되고 있어 福建省에 대한 투자중 이 두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66%, 투자액으로는 7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臺灣企業投資區 설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廣東省은 臺灣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對中 투자 신고건 중 48.3%에 해당하는 1,208건이 이미 투자되었으며, 1991년에도 101건, 금년 5월까지 43건이 추가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深圳特區에 대한 투자는 379건, 1.11억 달러(신고기준)로 단일 도시로서는 최대의 투자지역이었으며 최근에도 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건수와 투자액 모두 전체 對中 투자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華南과 華中지역의 임금과 지가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저렴한 遼寧省과 山東省 등 渤海灣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⁷⁾ 遼寧省 자료에 따르면 동 지역에 대한 臺灣의 투자는 1989~91년간 110건에 8,076만 달러로 홍콩, 일본에 이어 세번째 투자국이었으며, 山東省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182건에 1억 3,372만 달러가 허가를 받아 홍콩에 이어 두번째 투자국이 되고 있다. 특히 大連과 靑島의 경우 臺灣계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져 동지역에서의 홍콩, 한국, 일본, 臺灣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7) 〈부표 7〉 참조.

■ 勞動集約型 製造業 투자

臺灣내 경영여건의 악화는 臺灣의 수출을 주도해 왔던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加速化시켰고, 그에 따라 臺灣의 對中 투자는 업종 구성에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신고된 숫자를 기초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이 건수로는 전체 對中 投資의 90.8%(2,271건), 금액으로는 88.7%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부터 금년 5월까지 대만 경제부가 승인한 사업에서도 제조업 집중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製造業 구성에 있어서는 의류봉제, 신발, 전기·전자, 프라스틱, 일용품, 공예품, 완구, 피혁 제품 등 單純 勞動集約的인 업종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5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들어 투자업종이 자동차, 석유화학, 계산기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과 부동산, 금융, 관광, 농업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廣東省과 福建省을 중심으로 土地 有償讓渡를 통한 구역 설계·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종래의 단순조립가공에서 벗어나 원자재의 기초공업으로 부터 부두건설, 운송, 창고·보관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해를 중심으로 증권과 금융업에 대한 臺灣기업의 관심도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상해 漕河涇開發區내에 臺灣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廈門과 福州에서도 臺灣기업에 의한 전자공업 및 하이테크區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臺灣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종래의 기존시설 이전의 형태에서 신기계·장치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합작기간도 종래의 10~20년의 단기투자에서 50~70년으로 長期化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평균 투자규모도 점차 커져 제조업의 경우 1991년에는 77.6만 달러로 늘어났다.

〈표 Ⅲ-10〉 臺灣의 업종별 對中 투자 구성
(단위: 건, 천 달러)

業 種	件數	金 額	평균	業 種	件數	金 額	평균
제 조 업				煙火	1	0	0
•음식료품				•금속 및 금속제품			
식품	39	13,807	354	금속	85	30,440	358
채소·과일 가공	36	10,609	175	燈裝飾	67	17,566	262
냉동수산물	19	4,557	240	漁具	2	1,328	664
•방직/의류				수공구	6	1,318	220
방직	74	31,995	432	•기계,제측기기			
의류제조	106	17,876	169	차량	202	78,923	391
지갑,상자,포대	40	16,466	412	機器	30	9,461	315
편직의류	62	13,012	210	의료기기	10	9,461	946
침직	24	4,945	206	주방용 위생설비	22	3,761	171
장갑	15	2,247	150	자동차	7	2,185	312
나염	5	2,030	406	•전기/전자			
•나무,竹,藤 제품				전자,전기 제품	242	102,748	430
목재공업	46	15,688	341	전기용품	37	13,343	361
竹·등나무 제품	48	10,210	213	•가타 제조업			
가구	15	2,247	150	체육용품	59	20,348	345
•종이제품/인쇄				수공예품	48	11,062	231
종이용기	15	6,920	461	시계	12	10,989	916
종이제조	11	6,680	607	우산제조	62	10,829	175
일용품 위생紙	36	6,675	185	지퍼	10	6,490	649
인쇄	21	2,793	133	체육용품	59	20,348	345
•피혁,모피,신발				안경	14	5,593	400
신발	306	58,751	192	玩具	56	5,126	92
피혁	58	6,680	115	교육용품	6	1,518	253
•고무,프라스틱				선물용품	14	903	65
프라스틱	129	44,582	346	光學	4	751	188
고무	31	6,478	209	보석가공	7	410	59
•화학				비제조업			
석유화학	37	7,158	37	•농·축산업	35	21,378	611
제약	11	3,007	273	•수산업	2	185	93
비료	1	1,800	1,800	•무역업	37	6,393	173
도료	15	1,655	110	•서비스업	62	56,472	62
합성수지	3	400	133				
안료	1	185	185				
•비금속광물 제품				미분류	68	980	15
도자기	54	10,214	189				
石제품	28	8,964	320				
유리	10	4,920	492	총 허가	2,503	753,915	301

資料: 〈표 Ⅲ-9〉와 동일.

■ 短期回收-輸出指向型 投資

臺灣기업들의 경우 輸出指向型 기업이 대부분으로서 臺灣으로 부터 자본, 기술, 관리자, 輸出先을 가지고 들어와 中國에서 가공, 조립 후 곧바로 홍콩, 미국 등 기존시장에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평균 수출비율이 8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2~3년내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大宗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의 기존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산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이 3~5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업체의 40%정도가 당해년도에 투자를 실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投資方式에 있어서는 合資와 合作이 전체의 44%, 獨資企業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래는 단일 중소기업에 의한 진출 형태에서 최근에는 대규모 臺灣 그룹사들에 의한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도 나타나고 있다.

IV. 우리기업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最近 海外 直接投資 推移와 特徵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이 林業開發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968~1979년 기간 동안에는 외화획득 및 주요 원자재 확보형 투자를 중심으로 319건, 1억 4,700만 달러(총투자 기준)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전통적인 수출방식만으로는 新保護貿易主義의 貿易障壁을 극복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해외투자가 장려되기 시작하여 1980~85년 기간 동안에는 281건, 4억 2,800만 달러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國際收支가 黑字基調로 전환된 1986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임금인상과 심각한 노사분규, 國際收支 黑字와 달러화의 인위적인 平價切下에 따른 原貨의 平價切上, 거세지는 선진국의 무역규제 등 국내 경영여건 및 수출여건의 악화는 기업의 國際化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시킨 것이다. 특히 1986년 이후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되면서 외환사정도 양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1986~91년 기간 동안 1,381건, 34억 7,2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투자가 허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60%에 달하는 빠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서는 아직 일천한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는 여타 대안적 국제사업활동에 비하여 해외직접투자라는 사업형태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의 진척으로 국내시장 자체가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EEA의 창설과 NAFTA의 결성 움직임 등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는 우리기업들의 국제시장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향후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 IV-1〉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추이

(단위:건, 천 달러)

	총 허가		순 허가 ¹⁾		총 투자		순 투자 ²⁾	
	건수	허가액	건수	허가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68~79	366	251,049	285	224,797	319	147,861	269	126,449
1980~85	325	626,453	169	541,654	281	428,350	171	356,414
1986	74	364,912	50	331,152	52	183,877	33	161,184
1987	110	371,061	74	268,028	92	410,508	60	320,897
1988	253	479,349	215	407,711	176	223,761	144	164,096
1989	368	943,346	321	688,104	269	569,590	246	392,387
1990	517	1,624,792	463	1,336,104	339	959,326	317	813,185
1991	539	1,605,634	489	1,367,815	453	1,125,364	430	1,037,224
1968~91	2,552	6,265,056	2,066	5,067,388	1,984	4,043,072	1,673	3,372,904

註: 1) 純許可는 총허가에서 失效를 차감한 것임.

2) 純투자는 總투자에서 清算과 減資를 差減한 것임.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2.

해외직접투자의 빠른 증가에 따라 그 구조도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의 해외직접투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 生産效率型 제조업 투자의 증가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자원개발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資源과 市場追

IV. 우리기업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69

求型 투자가 大宗을 이루었으나, 1986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生産效率追求型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급격한 임금상승, 노동력 수급구조의 괴리현상과 생산직 기피 현상 등 노동력 부족, 원화의 계속적인 平價切上 등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계속 악화되면서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및 생산기술과 결합하는 형태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아세안과 中國에 대한 투자는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生産效率型和 우회진출을 위한 生産據點 確保型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동기를 살펴보면 54개 대상기업중 50개사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을, 10개사가 현지의 원자재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목표시장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우선 순위에서 있어 원가절감 요인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업종도 종래의 무역업과 자원개발 중심에서 製造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5년 전체 해외투자의 17.1%에 불과하던 製造業에 대한 투자 건수는 198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92년 상반기 현재 51.8%로 높아졌다. 특히 아세안과 中國에 대한 투자는 製造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1992년 6월말 현재 對아세안 투자건수의 87.9%, 對中 투자의 93.6%를 차지하고 있다.

製造業 업종구성에 있어서는 1991년말 현재 허가액 기준으로 전기·전자 분야를 포함한 조립금속 업종이 전체의 25.1%를, 1차 금속 16.5%, 섬유·의복 13.1%, 석유화학이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우리 기업의 ASEAN 및 中國에 대한 投資 動機

(단위:개사, %)

	ASEAN ¹⁾		中國 ²⁾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현지국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	97사	46.9	50	55.6
현지시장의 침투	29	14.0	12	13.3
원재료의 확보	22	10.6	10	11.1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거점	45	21.7	8	8.9
기 타	14	6.8	10	11.1
총 응답수 ³⁾	207	100.0	90	100.0

註: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임.

2) 금년 4월 CAS 조사팀이 현지 실사한 기업과 동 센터에 예비검토를 신청했던 기업 54개사를 포함한 것임.

3) 중복응답이 있기 때문에 실사 기업수보다 많음.

■ 中小企業의 海外 直接投資 증가

雜製品과 섬유, 신발 등 소규모 製造業 部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6년에는 70건으로 전체 해외투자의 14.7%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에는 736건으로 전체 해외투자의 44%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은 국내 임금인상과 생산직 기피 현상에 따라 과거 저임금에 기반을 둔 저부가가치 업종을 해외로 이전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고기술·고부가가치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투자는 기존 설비의 이전을 수반하고 있으며, 업종에 있어서는 잡제품 및 신발업, 완구, 의류 등 1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투자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東南亞와 中國, 中南美 지역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IV-3〉 중소기업 해외투자 추이

(단위:건, 천 달러)

구 분		'86	'87	'88	'89	'90	'91
중소기업	금액	13,780	21,342	50,413	142,276	306,998	488,844
해외투자잔액	건수	70	101	157	293	508	736
전체해외투자에	금액	2.17	2.20	4.5	9.85	13.15	14.49
대한	건수	14.7	18.9	23.5	32.59	40.84	43.99
중소기업의 비중							

資料: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아세안 4개국 해외투자 상태에 관한 연구』, 1991. 10.

■ 투자지역의 선회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지역은 東南亞과 北美地域으로 兩極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6월말 현재 殘存許可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두 지역에 대한 투자는 1,786건으로 전체 해외투자 중 77.7%, 허가액은 40억 3,335만 달러로 77.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수출 마케팅 능력의 제고를 위한 貿易業 투자와 수입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市場防禦的인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철강, 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가 많은 편이다. 반면, 東南亞 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신발, 가죽, 전자부품 조립 등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原價節減型의 소규모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석유제품과 목재 등 資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資源確保型의 투자도 일부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 지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생산요소 가격의 인상 등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類似·同種 업종에 대한 우리기업의 과다진출(특히 인도네시아)로 인하여 우리 기업간 過當競爭 현상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勞動集約的인 업종을 중심으로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

리적으로도 隣接해 있는 中國으로 투자지역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7년부터 증가한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199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中國에 대한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대상 지역이 중국으로 선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비중을 살펴 보면 1990년에는 35%에 달하였으나, 1991년에는 25%로 낮아 졌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전체 해외투자의 16.6%에 해당하는 5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투자는 1989년말 현재 건수로는 1.3%, 허가액으로는 0.5%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에는 건수로는 20.8%, 허가액으로는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신규로 허가된 건수는 10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5.8%에 이르고 있다. 1991년 全經聯이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접투자 유망지역 조사³⁸⁾에서도 아세안 전체가 34%에 불과한 반면, 中國이 20.2%를 차지하여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對中 投資의 現況과 特徵

가. 對中 投資 推移

1985년 한스물산이 홍콩을 통한 迂廻投資의 형태로 廣東省에 봉제완구 공장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中國에 대한 투자는 1988년까지는 홍콩과 일본의 현지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38) 全經聯, 『韓國製造業의 海外投資 經營成果 調査』, 1991.5. p. 50.

〈표 IV-4〉 아세안 4개국과 中國에의 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85년 잔존	89년 잔존	1990	1991	92.1~6
아세안 4개국	건	44	198	182	133	50
	(%)	(9.7)	(17.7)	(35.2)	(27.2)	(16.6)
	금액	100,039	463,757	583,528	303,094	42,713
	(%)	(14.4)	(19.6)	(35.9)	(18.9)	(8.1)
中 國	건	—	14	38	112	108
	(%)		(1.3)	(7.4)	(20.8)	(35.8)
	금액	—	12,720	54,493	84,721	79,652
	(%)		(0.5)	(3.4)	(5.3)	(15.2)

註: ()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구성비. 1990, 1991, 1992. 1~6은 당해년도 총허가 기준임. 제3국을 통한 迂廻投資는 제외.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2. 6. 30.

그러나 1988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종래의 迂廻投資가 直接投資의 형태로 전환되었고, 아울러 투자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進雄企業이 廣東省에 텐트 봉제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을 시효로 하여 1989년 12건, 1990년 38건에 달했으며, 특히 1991년에는 직접투자 허가건수가 112건에 달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11건으로 투자건수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지역이 되었다.³⁹⁾ 그 결과 금년 6월말 현재 중국에 대한 투자는 直接投資와 홍콩과 일본의 자회사를 통한 迂廻投資를 포함하여 총 282건에 2억 5,000만 달러(잔존 허가 기준)로 전체 해외투자의 건수로는 12.4%, 허가액으로는 4.8%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 이후 對中 投資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背景으로는 ① 양국간

39)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금년상반기중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228건에 계약액은 1억 7,117만 달러로 건수로는 6위, 계약액으로는 7위 투자국임.

〈표 N-5〉 우리기업의 對中國 투자추이

(단위: 천 달러)

		1985~88	1989	1990	1991	1992.上	누계
直接投資	건	2	9	37	110	108	266
	금액	6,000	6,648	54,598	78,326	79,652	225,224
迂廻投資	건	5	4	4	—	3	16
	금액	7,773	4,810	2,665		9,550	24,798
計	건	7	13	41	110	111	282
	금액	13,773	11,458	57,263	78,326	89,202	250,022

註: 각년도 허가분중 철회, 실효, 減資, 增資 등을 감안한 잔존 허가 기준이며, 직접 투자와 제 3국 자회사를 통한 진출만을 포함.

資料: CAS DATA BASE.

관계개선에 따른 교류확대, ②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③ 중국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지적할 수 있다.

■ 양국관계의 개선과 활발한 경제 교류

1987년 우리 정부는 6.29선언을 통해 북방국가와의 교류를 천명하였고, 중국정부도 1988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의 非政治的인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遼寧省과 山東省 정부가 최초로 한국기업에 대해 直接投資를 개방(4월)하였다. 1990년 10월 大韓貿易振興公社와 中國國際商會간 상호 무역대표부 개설 이후 종래의 민간차원의 교류가 공식관계로 발전하였으며, 1992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로 진전하여 양국간에는 민간차원의 무역협정(1992. 2. 발효)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1992. 7. 발효)되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협력관계는 8월 양국간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됨으로써 정부간의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對中 투자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양국간 관계개선과 함께 貿易과 人的交流도 활발해졌다. 한국과 중국

IV. 우리기업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75

의 인적교류는 1988년 9,000여명에서 1991년에는 8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교역규모 역시 1988년의 30억 달러 규모에서 1991년에는 58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방식에 있어서는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과 종합상사들의 상호 지사설치가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에서 점차 직접교역 방식으로 전환되어 금년에는 직접교역에 의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표 IV-6〉 최근의 韓·中 교역추이

(단위:백만 달러)

	1988	1989	1990	1991	1992. 上
수출 ¹⁾	1,700	1,438	1,553	2,371	1,865
*직접비율(%)	21.9	30.4	37.7	42.3	53.1 ²⁾
수입	1,387	1,705	2,268	3,441	1,930
총교역액	3,087	3,143	3,821	5,812	3,795
무역수지	313	-267	-715	1,070	-65

註:1) 홍콩경유 간접교역을 포함한 것임.

2) 1~3월 까지의 숫자임.

資料: 商工部

■ 國內 産業構造 調整의 필요성

1970년대 연평균 8%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내외로 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産業構造 調整 壓力을 받고 있다.

우선 國內 經營與件이 대폭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우리의 임금상승률은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여 우리의 賃金水準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되었고, 저임 노동력에 경쟁우위의 원천을 둔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악화시켰다.

둘째,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開放政策의 효과가 나타나면

서 산업구조 조정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통상마찰의 완화 및 산업구조 조정을 목표로 점진적 市場開放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공산품 분야는 이미 개방을 거의 완료하게 되어 국내시장이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경쟁에 노출되게 됨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의 혜택을 받아 온 경쟁력이 낮은 산업부문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그간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 따라 기존 수출 주종 품목에 대한 미국과 EC등 서방국가들의 貿易報復措置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이들 품목에 대한 後發開途國의 追擊 壓力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첨단기술로 무장하고 있는 선진국과 재래기술 중심의 공업화를 시도하는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는 産業構造 調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부문에 대해서는 製品壽命週期를 연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자의 관점에서 중국은 국내에서의 입지여건 악화로 상실되어 가는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의 잠재시장으로서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中國의 유리한 投資環境

전반적인 교류여건의 정비와 함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은 국내 제조업의 임금인상으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평균임금 수준은 국내 동일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도 單純 勞動職種의 경우 국내 노동력에 비해 크게 낮지 않으며, 東南亞의 노동력보다 그 質과 量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7〉 靑島, 天津, 瀋陽의 임금수준 비교

(단위: 元/月)

	靑島市		瀋陽市		天津市
		전자업종	봉제업종		
관 리 직	220~1,000 (443)	220~495 (348)	300~500 (420)	302~550 (426)	400~550 (512)
기 술 직	180~500 (344)	190~400 (295)	300~660 (447)	275~605 (440)	385~650 (478)
숙 련 공	195~600 (319)	194~385 (278)	250~400 (348)	220~440 (330)	350~440 (385)
비숙련공	120~500 (269)	180~330 (245)	200~400 (280)	165~357 (261)	150~357 (219)

資料: 1992년 4월 CAS가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안은 靑島市 17개 업체, 天津市 4개 업체, 瀋陽市 2개 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임.

나. 對中 投資의 特徵

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추이와 주요국의 對中 투자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勞動集約的인 中小 製造企業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 投資地域에 있어서는 渤海灣과 東北三省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 單獨投資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의 對中투자가 勞動集約的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1989년 이후 중국의 전체 외자도입 구조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廣東省을 중심으로 華南經濟圈과 上海經濟圈에 집중 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 기업의 투자는 渤海灣과 東北三省에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형태에 있어서는 1989~91년 전체 對中 외국인 투자중 獨資企業이 차지하는 비중(21.6%)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獨資企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渤海湾 沿岸에의 편중 현상.

중국이 유치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70%이상이 華南과 華中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우는 遼寧省, 山東省, 北京市, 天津市 등 渤海湾연안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1992년 6월말 현재 渤海湾 지역에 대한 투자는 200건으로 전체 對中 투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金額으로는 1억 9,726만 달러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비교적 朝鮮族의 고용이 용이한 吉林省과 黑龍江省의 경우에는 각각 23건이 투자하고 있어 渤海湾과 東北三省 지역에 대한 투자가 건수로는 87%, 금액으로는 79%를 차지하고 있다. 揚子江 이남 지역의 경우 廣東省이 15건, 江蘇省이 10건으로 이는 대부분 초기에 진출한 경우이며, 江蘇省의 경우 昆山市와 寧波市 등 上海市 주변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단위가 확인되지 않은 25개 기업을 제외하고 도시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市는 山東省의 青島市로 49건에 5,620만 달러에⁴⁰⁾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瀋陽市(遼寧省, 23건 1,278만 달러), 하얼빈시(18건 2,593만 달러), 大連市(12건 9,433만 달러), 昆山市(江蘇省, 5건 7,710만 달러), 威海市(山東省, 24건 978만 달러),⁴¹⁾ 煙臺市(13건 564만 달러)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吉林省의 경우 투자의 대부분이 延邊朝鮮族自治區에 집중되고 있다.

40) 青島市 자료에 따르면 1992년 6월말 현재 총 72건에 9,049만 달러가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27개 업체가 조업중 임. 업종은 전자, 가전, 경공업, 화학, 공예품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60개사가 독자기업임. 투자기간에 있어서는 30년이상인 68%, 50년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장기 투자임. 투자건수의 70%이상이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新華社』, 1992년 8월 30일자.

41) 威海市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三資企業과 委託加工 기업을 포함하여 총 128사에 이르고 있어 한국측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V-8〉 지역별 對中 直接投資 現況(1992년 6월말 현재)
(단위: 천 달러, %)

地 域	건수	金 額		비 고	
		구성비	구성비		
渤海湾 地域	140	49.6	129,159	51.7	* 青島 49, 威海 24, 연대 13 * 진황도 2, 蒼州 2
山東省	91	32.3	74,621	29.8	
北京市	23	9.9	31,299	12.5	
天津市	22	7.2	20,194	8.1	
河北省	4	1.7	3,045	1.2	
東北三省地域	106	37.6	68,101	27.2	* 심양 23, 대련 12, 영구 10 * 대부분 연변자치주에 집중 * 하얼빈 18, 牡丹江 3
遼寧省	60	19.3	31,964	12.8	
吉林省	23	9.4	6,888	2.8	
黑龍江省	23	11.0	29,249	11.7	
華南 地域	21	7.4	30,515	12.2	* 심천 2, 汕頭 2, 廣州 2 珠海, 廈門 각1
廣東省	15	9.4	20,230	8.1	
福建省	4	1.1	9,485	3.8	
海南省	2	1.1	800	0.3	
華中 地域	15	5.3	22,247	8.9	* 福州 1 * 寧波 3, 昆山 5
上海市	2	0.6	6,500	2.6	
浙江省	3	1.1	5,187	2.1	
江蘇省	10	2.8	10,560	4.2	

資料: 〈표 IV-5〉 동일.

이들 지역에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중앙정부가 한국과의 지리적으로 인접성 등을 고려, 山東省 정부에 한국과의 교류특혜를 부여함으로써 省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1988년 이후 양국간 비정치적 교류가 허용되면서 山東省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0년 9월 仁川과 威海市를 잇는 貨客航路가 최초로 개설됨으로써 山東省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89년 이후이고, 이 시기에는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제반 코스트가 상당히 상승해 있었으며, 홍콩과 대만, 일본계 기업들에 의해 이미 선점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컸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山東半島와 遼東半島 개방구의 경우 1988년부터 개발과 개방에 박차를 가하였기 때문에 후발자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작았을 뿐만아니라 제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점이다.

셋째, 遼寧省을 중심으로 한 東北三省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朝鮮族 고용을 통해 해외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고 문화적으로 친밀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기업들의 현지법인 운영방식의 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발해만 지역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요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 조립 또는 가공한 후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외에 우리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보부족에 따른 정보수집비용을 최소화할 위해 유사한 업종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靑島市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기업설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반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 勞動集約的 제조업 비중이 높음.

1992년 6말 현재(잔존허가 기준)으로 製造業에 대한 투자는 257건에 2억 1,443만 달러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對중국 투자 중 건수로는 91.1%, 許可額으로는 85.8%를 차지하고 있는,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제조업 구성에 있어서는 자동차 부품, 악기 등 일부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제외하면 단순 勞動集約的인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의 斜陽産業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일 업종으로는 섬유와 의류 봉제업종에 대한 투자가 72건(제조업 투자의 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과 피혁 제품이 32건(同 12.5%), 전기·전자 부품 조립이 23건(同 9.0%)이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이 100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로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 또는 조립 후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냉면, 당면 등 음식료품과 목재 가공업종 및 주조물 등 조립금속 업종에 대한 투자도 상당수 투자되고 있다.

한편 비제조업 부문의 對中 투자는 해양 수산양식, 요식업, 석재 채굴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중국내의 호텔·오피스빌딩, 자원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미 他國이 先占하고 있어 포화상태이거나 중국정부가 서비스업종 진출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기업의 對中 투자는 중국의 內需市場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라기 보다는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 價格競爭力을 제고시킴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 수출하는 市場防禦的인 投資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勞動集約的인 소규모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업종은 국내의 입지여건 악화로 수출시장에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서둘러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국간의 投資保障協定 등 우리기업들의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大企業조차도 요식업과 봉제 등 소규모 투자를 통한 탐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진출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의 件當 규모는 중국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의 평균 투자규모를 하회하는 89

〈표 IV-9〉 업종별 對中 직접투자 현황(1992년 6월말 현재)

(단위: 천 달러, %)

업종	件數		金額		1,000미만		1,000~1,999		2,000~4,999		5,000 이상	
	구성비	비	구성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製造業(A)	257	91.1	214,433	85.8	201	74,744	35	48,322	13	38,668	7	52,699
음식료품	17	6.0	9,458	3.8	15	5,124	1	1,334	1	3,000	-	-
섬유, 의류	72	25.5	41,159	16.5	60	20,404	9	12,505	3	8,250	-	-
신발, 피혁	32	11.3	38,425	15.4	18	5,151	9	12,798	3	9,476	2	11,000
목재, 가구	12	4.3	2,380	1.0	12	2,380	-	-	-	-	-	-
종이, 인쇄	4	1.4	2,636	1.1	3	1,436	1	1,200	-	-	-	-
석유, 화학	6	2.1	10,156	4.1	2	1,756	2	2,400	-	-	1	6,000
비금속광물	6	2.1	3,163	1.3	5	2,038	1	1,125	-	-	-	-
금속제품	14	5.0	14,400	5.8	11	5,050	2	2,600	-	-	1	6,750
전기, 전자	23	8.2	27,920	11.2	13	7,543	6	9,610	4	10,767	-	-
기계, 장비	10	3.5	11,071	4.4	7	2,596	1	1,400	1	2,075	1	5,000
기타제조업	61	21.6	53,665	21.5	54	21,266	2	3,350	2	5,100	2	23,949
非 製造業	25	8.9	35,589	14.2	18	6,899	5	7,250	1	2,100	1	19,340
농·축산업	1	0.4	1,900	0.8	-	-	1	1,900	-	-	-	-
광업	4	1.4	1,302	0.5	4	1,302	-	-	-	-	-	-
수산업	11	3.9	9,340	4.5	7	3,140	3	4,100	1	2,100	-	-
음식숙박업	7	2.5	22,447	9.0	5	1,857	1	1,250	-	-	1	19,340
운수보관업	1	0.4	500	0.2	1	500	-	-	-	-	-	-
무역업	1	0.4	100	0.0	1	100	-	-	-	-	-	-
總計(B)	282	100.0	250,022	100.0	219	81,643	40	55,572	15	40,768	8	72,039

資料: 〈표 IV-5〉와 동일.

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달러 미만의 투자가 219건, 100~200만 달러의 투자가 40건으로 중소규모의 투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5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8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금년 7월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발효와 국교수립으로 최근에는 大企業을 중심으로 鐵鋼, 化學纖維, 시멘트, 컨테이너, 石油化學 등 대규모 플랜트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상당수 준비되고 있어 大規模 투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으로는 대우가 山東省에 총 2억 달러 규모의 시멘트 생산공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의 경우 上海市에 총 9,700만 달러를 투입 석도강관합자공장, 금성정보통신은 山東省에 전자교환기 합자공장(총 5,000만 달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獨資企業의 선호

우리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한 여타 국가들에 비해 獨資企業 형태로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 6월말 현재 우리기업의 對中 투자를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合資企業(合作 포함)이 149개 기업으로 전체의 52.8%, 獨資企業은 133개 기업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2년 상반기중에는 독자기업 전체의 55.9%를 차지하는 등 독자기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합자기업의 경우에도 업종, 기업운영 형태, 진출동기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多數 持分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측의 출자비율을 살펴보면 지분을 50%미만이 36개 기업으로 전체 합자기업의 24%, 50%지분을 기업이 52개사로 35%, 50%이상 기업이 61사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이 勞動集約度가 높은 업종에 진출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투자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공장에는 생산라인만을 이전하고 생산제품 판매, 원자재 조달, 자금조달은 본사에서 의존하는 형태의 기업운영을 하고 있어 현지법인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獨資企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0〉 우리기업의 출자비율 구성

(단위: 건, %)

50% 미만	50 %	51~99%	100 %	총 계
36 (12.8)	52 (18.4)	61 (21.6)	133 (47.2)	282 (100.0)

註: ()는 구성비

資料: CAS Data Base

반면,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식료품 가공 및 화학제품 업종과 일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현지의 원자재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중국측 파트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합資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3. 主要國과의 비교

■ 經濟協力 形態

미국, 일본 등 先進國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 형태를 살펴보면 貿易協力, 借款과 直接投資 등 資本協力, 技術協力の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만과 한국의 경우 무역과 직접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89~91년간 중국에 대한 借款 제공 계약액은 9.5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 차관도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간 협력은 기술이전, 무역, 직접투자 등 일본 민간기업의 對中진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양국간의 무역액은 1991년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對中 수출액은 105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5.7%를 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협력 규모가 작으며, 협력형태에 있어서는 무역, 직접투자, 기술이전, 차관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韓國과 臺灣의 경우 무역과 직접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진출분야가 지역과 업종에 있어 극히 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기업의 경우 아직까지도 對中 수출의 40% 이상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의 추가부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소규모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표 IV-11〉 주요국의 對中 經濟協力 형태(1989~91)

(단위: 백만 달러)

		借款提供	直接投資	對中 輸出	기술이전
홍콩	1989	488	3,160	12,540	n.a.
	1990	233	3,833	14,254	n.a.
	1991	229	7,215	17,463	n.a.
미국	1989	168	640	7,863	144
	1990	106	358	6,588	322
	1991	20	548	8,008	135
일본	1989	1,176	439	10,534	203
	1990	1,217	457	7,588	92
	1991	1,390	812	10,031	269
대만	1989	—	432	2,904	—
	1990	—	984	3,277	—
	1991	—	1,388	4,667	—
한국	1989	—	11	1,438	—
	1990	—	57	1,553	—
	1991	—	78	2,371	—

註: 계약액 기준임. 대만의 수출액은 홍콩 경우 간접 수출액임(홍콩 통계청)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1990, 1991/92년 판. 『中國統計年鑑』, 1992년 판.

■ 對아세안 투자의 中國으로 旋回

최근 아세안 4개국에서의 임금상승과 상대국 화폐의平價切上 등 경

영여건의 악화로 한국, 일본 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中國으로 선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大藏省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중 아시아 NIEs에 대한 투자는 1987년의 53.6%(건수 기준)에서 1991년에는 32.6%로 낮아지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아세안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투자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對아시아 투자 중 1991년에는 건수로는 19.3%, 申告額으로는 9.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1989년 28.5%를 차지하고 있던 아세안 4개국에 대한 투자(건수 기준)가 1991년에는 24.7%로 낮아졌다. 특히 금년 상반기만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4개국에 대한 투자는 50건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건수에 있어서는 아세안 4개국에 대한 투자를 초과하고 있다.

〈표 IV-12〉 韓國, 日本, 臺灣의 아세안과 中國에 대한 투자 비율(1991년)
(단위: 건, 백만 달러)

	韓國(1)		日本(2)		臺灣(3)	
	건수	허가액	건수	허가액	건수	허가액
중국(A)	112	84	246	579	237	174
아세안 4개국(B)	133	303	584	3,083	95	690
전체(C)	539	1,606	4,564	41,583	601	1,830
A/C, %	22.8	5.2	5.4	1.4	39.4	9.5
B/C, %	24.7	18.9	12.8	5.7	15.8	37.7

資料: 1)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2, 총허가 기준, 우회투자 제외.

2) 大藏省 申告分 1991년 4월~1992년 3월.

3)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對外投資統計月報』, 1992년 12월호.

■ 投資 地域 비교

미국 기업은 투자환경이 비교적 양호하고,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북경, 천진 등 大都市와 廣東省의 경제특구, 上海市와 주변의 江蘇省에 대한 진출이 많다. 홍콩과 臺灣 기업은 華僑資本을 중심으로 지연, 혈연을 통한 인맥 형성과 임가공 수출이 용이한 華南地域에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渤海灣 지역에 대한 진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3大都市(북경, 상해, 천진)와 대련을 거점으로 하는 遼寧省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山東省과 遼寧省, 그리고 인척관계를 중시하여 吉林省과 黑龍江省에 대한 진출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중국의 全方位 개방전략, 局地的인 經濟圈 형성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기업들에게 진출 지역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97년 홍콩의 반환이후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華南經濟圈의 형성과 上海를 核으로 하는 長江三角洲 經濟圈의 형성에 대비한 이들 지역에서의 거점 확보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山東省과 遼寧省 등 渤海灣지역에서의 주요국과의 競爭이 예상되고 있다. 1989~91년간에 주요국의 山東省과 遼寧省에 대한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遼寧省의 경우 홍콩과 일본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山東省의 경우 홍콩과 대만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기업은 遼寧省에서는 건수로는 7.0%, 계약액으로는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山東省에서는 각각 6.7%, 7.1%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별로는 우리기업들은 靑島市를 선호하여 홍콩과 대만에 이어 진출기업 수로는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瀋陽市에서는 홍콩기업을 제외하면 주요국과 비슷한 數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나, 大連市의 경우 일본기업과 홍콩기업에 의해 선점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遼寧省과 山東省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

(단위: 건, 만 달러)

	홍콩· 마카오		일본		미국		대만		한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遼寧省 전체 ¹⁾	554	70,417	264	47,079	93	9,352	110	8,076	85	6,403
(구성비)	45.8	54.7	21.8	36.6	7.7	7.3	9.1	6.3	7.0	5.0
大連市 ²⁾	328	21,060	255	56,758	63	10,160	79	2,916	30	3,672
瀋陽市 ³⁾	268	21,944	71	3,971	65	10,718	63	4,288	62	2,943
山東省 전체 ¹⁾	745	55,619	105	7,964	178	14,259	182	13,372	94	7,548
(구성비)	52.9	52.3	7.5	7.5	7.7	13.4	12.9	12.5	6.7	7.1
青島市 ⁴⁾	178	37,322	39	8,273	37	4,909	53	4,128	50	6,184
煙臺市 ⁵⁾		58,338		19,371		6,314		4,381		1,697

註: 1) 1989~91년 3년간의 누계임. <부표 7> 참조.

2) 1984~92년 3월말. 대련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자료.

3) 1982~92.7월중 누계. 심양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자료.

4) 1992년 3월말 현재 누계. 청도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자료.

5) 1992년 8월말 현재 누계. 연대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자료.

■ 進出 業種 比較

업종별로 살펴보면 美國은 자원개발, 화학, 하이테크 등 중국정부의 정책적 육성분야와 자본재 관련 중공업, 중국내 내수시장을 겨냥한 일부 경공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비교적 크며, 日本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균등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섬유, 식품, 전기, 화학, 철강, 기계 등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기업은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 분야의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호텔,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臺灣과 韓國 企業은 섬유, 의류, 피혁제품, 신발, 완구 등 대부분 노동집약적,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내에서 홍콩과 대만 기업과의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 投資 類型 比較

투자 유형에 있어서는 美國, 日本 企業들은 중국의 內需市場을 겨냥하여 合資企業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대만, 한국 기업은 제3국 시장을 겨냥한 效率追求型의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獨資企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合資企業의 持分構成에 있어서도 <표 I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기업들은 여타 주요 對中 투자국에 비하여 多數持分戰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들의 경우 합자기업도 대부분 效率性追求型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다수지분을 갖는다고 해서 항상 강한 統制力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지분전략을 선호하는 것은 통제력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IV-14> 合資企業의 出資比率別 구성

(단위: %)

	25% 미만	25~49%	50%	51~99%
중국전체	0.9	48.9	33.0	17.2
미국	1.2	50.5	31.4	16.9
일본	0.8	44.6	35.8	17.9
한국	1.2	24.7	34.3	39.8

資料: 三菱總合研究所 및 CAS Data Base

4. 對中 投資의 問題點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投資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집중현상 - 즉,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생산효율 추구형 투자, 발해만과 동북 3성에의 집중현상, 독자기업의 선호와 다수지분을 통한 강한 통제력의 추구 - 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선 對中 투자가 勞動集約的 제조업 중심의 生産效率 追求型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 투자가 그 目標市場을 주로 미국과 한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두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관계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둘째, 對中 투자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많은 부분이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國內産業의 空洞化 현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신발, 섬유 등의 업종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대중 투자는 같은 업종의 국내 기업에의 타격과 함께, 직접투자에 수반되는 기술이전으로 인한 부메랑 효과로 국제시장에서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시장잠식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汎世界化하는 국제시장 환경하에서 소위 부메랑 효과의 중요성이 과거만큼 크게 평가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에서 수반되는 기술이전이 그 댓가로 현지 시장을 잠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편 勞動集約的 제조업 중심의 對中 투자는 그 업종의 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거의 없는 中小企業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우리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의 상관습, 유통체제, 투자관련 제도와 법규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 축적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투자 실행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事業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과도한 정보수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대중 투자가 限定된 地域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立地特有的 優위 要素를 향유하는 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대중 투자의 지역별 집중현상은 정보비용과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제도나 특성과 만나면서 최근에는 외자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직접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土地 및 賃貸料의 상승폭이 커질 뿐만 아니라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勞動力의 移動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불화를 빚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경쟁 문제가 일부지역에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일례로 전자부품 업종과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山東省의 靑島市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임금수준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일지역내 유사업종에 있어 임금격차가 크고, 기존 진출기업에 비해 후발업체의 임금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對中 투자에서 獨資企業 형태를 선호하고, 多數持分을 통해 강한 統制力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의 잦은 변경과 불명확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合資企業의 경우 중국측 파트너는 소유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업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어 외국측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雇傭, 人事, 賃金, 財務管理, 製品價格 결정 등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人事와 財務管理가 기

업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는 핵심부문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통상 合資企業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회(董事會)를 구성하되 통상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滿場一致의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出資比率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없이 獨資企業을 선호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상이한 법규해석을 둘러싸고 현지 정부와 잦은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外國人投資 유치에 전담하고 있는 민원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관 조직들이 외국인 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설령 있더라도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기회가 많지 않아 독자기업으로서는 이같은 업무의 熟知度 및 처리능력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V. 효율적 對中進출을 위한 제언

앞서 우리는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우리의 對中 투자를 여타 주요 경쟁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진출의 특징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對中 투자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對中 투자의 새로운 방향과 그 구체적인 대안을 주관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최근 對中 진출 여건의 변화

가. 國際經濟秩序의 變化와 그 示唆點

최근 국제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은 巨視的 國際貿易構造의 측면에서 地域經濟 統合이라는 獨立·閉鎖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개별 국제기업들이 참여하는 微視的 國際市場環境의 측면에서는 汎世界化라는 統合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GATT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무역 구조의 地域主義化 현상⁴²⁾은, 유럽시장의 완전통합(EC와 EFTA의 통합)을 의미하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창설과 미국-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하는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 North Am-

42) GATT의 세가지 일반원칙 즉,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지주의가 각각 신보호무역주의, 지역주의, 이국간 주의(bilateralism)에 의해 위협받음으로 해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의 배경이 되고 있음.

erica Free Trade Area)의 형성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와 과거 일본의 大東亞共榮圈의 재현 우려 등으로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이 미미한 가운데서도, 6개의 小經濟圈-環東海經濟圈, 黃海經濟圈, 華南經濟圈, 兩岸經濟圈, 바트(Baht)경제권, 成長三角地帶(Growth Triangles) 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⁴³⁾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같은 小經濟圈 형성 움직임은 사회주의권과 신흥공업제국간의 경제교류 확대, 역내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 심화 등을 표면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나 지역도 역내 경제교류만으로는 경제적 순환이 완결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경제지역이나 북미자유무역지역과 같은 '閉鎖的 地域主義'의 형태라기 보다는 '防禦的 地域主義'의 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地域主義化 추세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경기의 침체 속에서 선진제국의 자국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일본의 경제대국화와 신흥공업제국의 국제경제에서의 급부상, 그리고 미국과 EC 제국의 산업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國際競爭力 低下가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화 추세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실패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나, 설사 타결이 된다고 하여도 아시아 지역에서의와 같은 防禦的 地域主義化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汎世界化 추세는 1980년대 이후 교통, 통신,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선진제국의 대중소비문화가 전세계로 급속히 전파되어 市場의 同質化(homogenization)를 야기, 汎世界的 市場(global market) 및 世界商品(world product)을 대두시킴으로써 나타나고 있다.⁴⁴⁾

43) 아시아 지역에서의 소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KIET, "활발해지는 아시아지역의 小經濟圈 형성 움직임", 산업경제정보 제1330호, 1992. 3. 18 참조.

물론 시장의 범세계화 추세는 현재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과 같이 국제경쟁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범세계적 국제화 추세에 따라 여타 산업으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는 과거와 같이 하나의 제품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예를 들면 선진국 → 신흥공업국 → 후발개도국)市場需要化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차등없이 동시에 시장 수요화 되는 형태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국제경제환경 변화가 우리의 對中 진출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선 미시적 國際貿易構造 측면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의 추세는 代案的市場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NAFTA 수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對EC 수출액 역시 매년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금년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NAFTA와 EEA가 금년 말 예정대로 공식 출범할 경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중 수교로 지금까지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중앙시장에 대한 진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액은 크게 늘어나 금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70%가 늘어난 45억 달러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년내 對EC 수출규모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은 NAFTA와 EEA의 결정에 따른 우리의 대외수출의 타격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최대의 代案的市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향후 中

44) 최근 국제시장환경의 범세계화 추세에 대해서는 Porter, Michael E.,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A Conceptual Framework" in Michael E. Porter (ed.),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pp. 15~60 참조.

〈표 V-1〉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88	1989	1990	1991	1992(1-6월)
NAFTA	23,376 (-)	22,983 (-1.7)	21,650 (-5.8)	21,007 (-3.0)	9,730 (-2.2)
EC	8,132 (-)	7,394 (-9.1)	8,876 (20.0)	9,728 (9.6)	4,559 (-8.8)
중 국	1,700 (-)	1,438 (-15.4)	1,553 (8.0)	2,371 (52.7)	1,865 (81.4)

註: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한국무역협회

國市場에서의 競爭이 크게 激化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제구조가 3大 經濟圈으로 재편되면서 이들 중 이미 두개가 閉鎖的 經濟圈 形成을 가시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미·일·EC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상호 시장침투 형식의 직접투자를 대규모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이제는 아직 폐쇄적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하는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NIEs에 이어 이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며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시장으로 競爭의 場을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상에서 설명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를 역시 선진다국적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對中投資를 크게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에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금년 상반기 현재 중 13,069건, 145.3억 달러의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이는 1991년 1년 동안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를 계약건수와 계약금액 면에서 모두 능가하는 수치인 것이다.⁴⁵⁾

45) 『國際貿易』, 1992년 9월 8일자.

나. 中國의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

■ 經濟改革: 市場經濟體制의 도입 확대

금년도 중국의 경제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市場經濟體制의 확대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黨·政 최고 지도부의 공개적인 의사표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江澤民 당총서기는 중앙 黨校 연설(6. 9)에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대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袁木 國務院 대변인은 기자회견(7. 16)을 통해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보다 발전시켜 시장기구가 경제의 전반적인 조절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시장기능 강화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10월말에 열린 제 14기 黨 大會에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가 채택됨으로써 중국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공식화하였다.

최근 중국경제의 이같은 시장경제체제화 움직임은 과거 10여년 동안 중국의 경제학계에서 계속되었던 計劃과 市場에 관한 論爭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며, 중국의 경제운영을 위한 도구가 計劃에서 市場으로 轉換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市場化 趨勢는 현재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수가 1978년 당시의 120종에서 50종으로, 국가통제를 받는 상품의 수는 188종에서 10종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유통되는 원자재가 전체의 80%에서 현재는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년도 경제개혁의 중점 추진 사항인 企業改革에서도 중국경제의 시장화 추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자국경제의 이같은 성격변화를 반영하여 企業改革의 기본원칙을 市場競爭의 活性化로 설정하고 있다. 리펑 총리는 북경에서 열린 國營企業 經營體制 轉換에 관한 全國工作會議에 참석, 행한 연설(8. 7)을 통해 “國營企業의 經營體制 轉換은 향후 중국의 經濟發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요체는

市場競爭體制의 確立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

市場競爭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중국 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조치는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政·經分離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거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許可와 嚴格한 統制가 수반되었던 각종 企業機能에 대한 經營自律權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기구와 기능의 개편으로 정부-국영기업의 라인 관계가 깨어지면서 企業의 再構成 作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율권 신장을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로는 지난 7월 23일 공포된 ‘國營工業企業 經營體制 轉換 條例’를 들 수 있다. 이 조례는 1988년 발효된 ‘企業法’의 최초의 실시조례로서, 금년 1월 열린 경제체제개혁 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국영기업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8개 조치의 본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초라는 중요성을 띤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과 경영, 투자, 판매 등 기업의 14개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自律權 부여와 손익의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獨立採算制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가장 먼저 중국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首都鋼鐵公司에 판매, 국내외 투자, 대외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經營自律權을 부여하였으며, 주룽지 부총리는 國營企業 經營體制 轉換에 관한 全國工作會議에 참석한 전국 국영기업 지도자들에게 이같은 조치의 확대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기구와 기능개편을 통한 企業의 再構成 작업은 1991년 9월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국영기업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12개 조치중의 하나로 제시된 企業集團化 방침이 구체화된 것이다. 즉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하부조직(통상 局 單位)으로 되어 있는 국영기업들을 정부로부터 분리시킴과 함께, 이들을 企業集團化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시적 조치로서 國務院 鐵道部는 현재의 9개 지방 철도관리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회사화하고, 국철은 이들 회사로 구성되는 鐵道企業集團으로 전환하는 조치(8. 18)를 취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각 지방별로 확대 추진될 예정인데, 지방 정부내 各 工業

局 산하의 國營企業들이 유사한 형태로 株式會社化 하여 企業集團化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이같은 구체적 企業改革 措置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근의 기업개혁이 중국경제의 성격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중 修交후 크게 늘어나게 될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進出과 관련하여 크나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지적한 중국내 기업의 市場化 趨勢는 최근의 대외개방 확대추세와 관련하여 볼 때 內需市場의 擴大開放이 임박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市場競爭體制의 확립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기업개혁은 시장경쟁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한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내수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內部整備過程, 즉 國營企業의 競爭力 提高라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 경제의 이상과 같은 시장화 추세는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외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전 정비과정이라는 측면과 함께, 내수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한 자국기업의 競爭力 提高라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國營企業의 再構成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철도부의 기업 재구성 작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 정부 공업국 산하 국영기업의 企業集團化 작업은 기업의 수직, 수평 계열화를 통한 競爭力 제고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對外開放: 全面的인 開放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최근 대외개방추세는 한마디로 全面的인 개방의 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과거 지역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대외개방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내륙과 국경 도시로 확산되고 있고,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던 산업 부문에서도 개방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왔던 3차 산업, 그중에서도 국내 유통부문과 무역업에 대한 개방 방침의 결정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國內流通部門(특히 백화점 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전국의 11개 주요 도시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貿易業의 개방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부문 개방의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조만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다.

국내 유통부문과 무역업에 대한 개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실 국내 유통부문과 무역업에 대한 투자허용은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자국의 內需市場의 攻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하부구조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는 수출의무비율(통상 70%) 한도 외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내수판매를 허용하여 왔으나 제품의 판매와 持續的인 競爭力(sustainable competitiveness) 확보의 관건이 되는 자체 마케팅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 유통부문과 무역업에 대한 개방은 내수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는 일차적인 신호라는 점을 넘어서서, 향후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향유할 수 있는 영구적인 현지기반을 제공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주요국들간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중·미 무역마찰의 심화

향후 효율적인 對中 진출을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서 중·미 양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通商摩擦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의 유리한 입지요소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하는 생산효율 및 수출지향형 투자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과 그 목표시장이 대부분 미국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對中 압력은 인권문제, 무기통제 문제, 통상문제를 주요한 수단으로 행해져 있다. 인권문제는 사실상 천안문 사태 이후 양국 통상마찰의 핵심내용인 최혜국 대우(MFN) 연장문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으며, 최근까지도 미 상원 의원들의 趙紫陽 전 당총서기의 측근인 鮑彤에 대한 석방촉구 서한 전달(8.5), 미 하원의 '中國人居住保護法案' 통과(8. 11) 등의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한편으로는 미국측의 쌍무적인 인권압력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이유로 일축하고, 동시에 활발한 제3세계 외교를 통해 국내 외교무대를 통한 압력 가능성까지도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해외이주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인권압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무기통제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중국은 작년말과 금년 초에 걸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기술수출통제협정(MTCR)에 가입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對中 압력의 원인을 제외하였다. 다만 최근 미국은 독재정권에 대한 중국의 대량 살상무기 제공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기의 수출 경우는 표면적으로나마 중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무기수출상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통제문제를 매개로한 對中 압력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미국이 對中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온 세가지 문제중에서 아직도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通商問題 뿐이다. 그리고 통상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은 점차 증폭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1992~1993 회계연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MFN 연장을 발표(1992. 6. 2) 직후 미 하원은 다음 회계년도 對中 조건부 MFN 연장안을 공개(6. 13)하였고, 7월에는 다시 미 하원이 기존의 전제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영기업이 생산한 對中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MFN을 철회하는 조건부 MFN 연장안을 가결하였다.

또한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미 무역협상(지금까지 9회에 걸쳐 열렸음)에서도 중국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있으며, 9차 협상의 결

럴 직후에는 동 협상의 시한인 10월 1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고율의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對中 제재 리스트를 발표(8. 21)한 바 있다.

현재 중·미 양국간에 통상마찰이 이같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같은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현재 중·미 간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미 무역협상이 설사 시한내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무역압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양국간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 상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도 부터는 적자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금년 들어와서도 3월까지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는 다시 적자액이 증가하여 5月末 현재 전년동기대비 62.9%나 증가한 5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V-2〉 미국의 對中 貿易推移

(단위: 십억 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미국통계	수 출	3.5	5.0	5.8	4.8	6.3
	수 입	6.9	8.5	12.0	15.2	19.0
	합 계	10.4	13.5	17.8	20.0	25.3
	수 지	-3.4	-3.5	-6.2	-10.4	-12.7
중국통계	수 출	4.8	6.6	7.9	6.6	8.0
	수 입	3.0	3.4	4.4	5.2	6.2
	합 계	7.8	10.0	12.3	11.8	14.2
	수 지	1.8	3.3	3.5	1.4	1.8

註: 중국 통계는 중국의 해관통계, 미국 통계는 미 상무성 통계 기준

중·미간에 무역마찰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는 예상의 근거는 보다 거시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사실 사회주의권의 몰락, 특히 소연방의 와해는 중·미 협력체제의 바탕이 되었던 안보상의 공동 이해관계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對蘇 견제용 중국카드의 戰略的 價値를 크게 축소시켰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중·일관계 강화와 한·중수교, 그리고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 아세안 외교 등으로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사실은 향후 중·미 관계가 종전과는 달리 이념적·전략적 측면보다는 經濟的 實益追求라는 측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중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미국의 對中 壓力은 앞으로도 집요하게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국의 對中 무역압력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對中 진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은 기존의 對中 生産效率追求型 投資의 限界가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의 유리한 입지요소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하는 생산효율 및 수출지향형 투자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과, 그 목표시장이 또한 대부분 미국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對中 무역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년 8월에 발표된 미국의 對中 무역제재 리스트가 우리의 對中 투자 주력업종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과 같은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46)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p. 1~18 참고.

2. 對中 投資 改善方向

가. 對中 投資의 基本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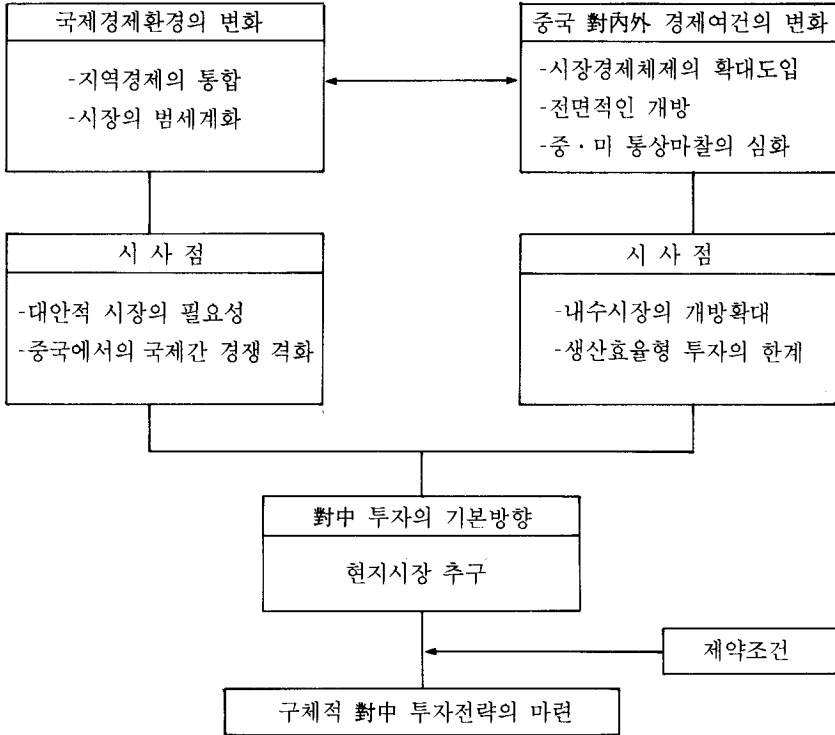
이상에서 설명한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의 對中 투자전략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地域經濟의 統合과 시장의 汎世界化 추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代案的 市場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북미와 EC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세계적인 多國籍 企業들의 국제경쟁이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행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서 內需市場의 開放에 대비한 내부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市場經濟體制의 확대 도입과 全面的인 對外開放 정책의 추진은 내수시장의 개방확대가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의 중요한 목표시장인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마찰 확대는 중국내에서의 생산요소 가격의 인상 추세와 함께 기존의 對中 生産效率型 投資가 조만간에 한계에 직면할 개연성이 큼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향후 對中 投資의 기본방향은 生産效率의 追求를 위한 기존의 消極的인 對中 投資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內需市場의 追求를 위한 積極的인 投資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도 V-1] 對中 投資의 기본방향



나. 具體的 改善方案

■ 制約要因들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은 개별 기업이 자국이 아닌 현지에서 사업을 벌임으로써 안게 되는 원천적인 불이익, 즉 海外費用(cost of foreignness)에도 불구하고 왜 교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⁴⁷⁾

47) Peter J. Buckley, "A Critical View of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다시 말해서 海外費用이란 해외직접투자에서 현지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가지는 원초적인 우위로서 현지 소비자의 기호, 사업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식, 각종 분야의 정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와 놓일 수밖에 없는 열위적인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해외비용의 원천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타국에 투자함으로써 새롭게 맞게 되는 제환경요소들에 대한 정보 혹은 자원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처하게 되는 환경은 <도 V-2>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기업 역시 중국에서 이같은 사업환경상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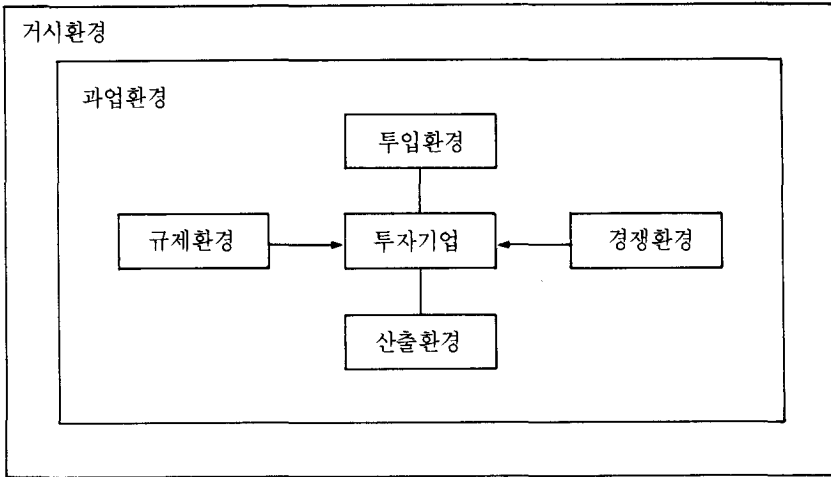
環境이란 機會와 威脅을 동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들의 중국내에서 순조로운 사업활동-특히 내수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을 함에 있어 제약을 가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投入環境은 생산에 필요한 제반 생산요소의 획득과 관련한 환경요소를 말한다. 생산요소에는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고려하여 왔던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 이외에도 원자재,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對中 진출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原資材와 部品の 安定的 調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원·부자재의 國內 優先購買 原則(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따라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경우, 관련 주변산업의 미발달로 그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중국내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우선원칙으로 원·부자재 조달에 있어 외자기업들은 국영기업에 비하여 가격, 품질, 납기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in Peter J. Buckley and Mark Casson(ed.),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The MacMillan Press, 1985, pp.2~3.

[도 V-2]

對中 투자기업의 사업환경



다.

현지에서의 원·부자재 조달에 관한 이같은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규정의 엄격함 이외에도 과도한 부대비용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비, 그리고 특히 外換收支 均衡 문제 등으로 상당한 곤란이 따르게 된다.

둘째, 產出物 環境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외자기업의 國內市場 販賣 抑制를 위해 사용된 內需比率에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유통경로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여 현지 시장에서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판매활동의 전제가 되는 자체 판로구축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기업들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輸出指向的, 生産效率追求型 投資와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하여 현지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이 전무한 실정이다.

셋째, 중국내에서의 競爭環境은 외자-국영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제3국 혹은 자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효율추구형 對中 투자에서는 경쟁요인이 크게 중요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향후 우리의 對中 投資가 內需指向型으로 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경쟁요인은 앞으로 투자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국내 國營企業에게는 인프라(수송, 통신, 원자재 이용 등) 사용상의 혜택을, 그리고 외자계 기업들에게는 경제특구와 연해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대외개방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同等한 待遇, 公正한 競爭'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준비중인, 기업형태에 관계없이(특히 국영기업과 외자기업) 企業所得 稅率을 單一化 하는 소득세 단일화 법안은 이같은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면 인프라 시설 이용에 있어 외자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相對的 不利益 역시 이같은 원칙에 따라 조만간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중국은 시장 경제체제의 확대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주요 원자재등의 품목에서 대대적인 가격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국의 二重價格體制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일 뿐, 외자기업들이 국영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원·부자재를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부자재 조달에서 외자기업들의 국영기업들에 비하여 안고 있는 이같은 불이익은 투입부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현지 판로의 이용, 운송, 통신 등의 부문에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한편 外資企業間의 競爭環境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자기업간의 두드러진 경쟁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현지의 낮은 생산요

소 비용을 추구하는 勞動集約的 輕工業의 경우 양질의 노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적인 임금인상 현상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 개방 움직임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외자기업간의 경쟁양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 현재 중국이 유치한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는 13,669건 14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0%, 220% 증가하였으며, 실제 이용액 역시 33.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0%나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 같은 러쉬는 금년 4월말 이래 중국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수시장의 개방 확대 가능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⁸⁾

이같은 사실은 향후 중국에서는 각 산업분야에서 내수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용 투자가 대폭 증대되면서, 외자기업간의 산출물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을 의미한다.

넷째, 規制環境은 외자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 상관습 등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계획해 낸다는 개념보다는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규제환경으로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중국은 輸入代替 品目이나 尖端技術製品 등을 제외하고는 내수판매를 제한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최근의 대외개방 확대 추세속에서 노동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도 소위 내수비율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나마 내비치고 있어 향후 신규 對中 투자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수입대체품목이나 첨단기술제품 이외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내수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내수시장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48)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2. 7. 27일자

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내수 비율이 일정 한도(통상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 ‘輸出主導型 企業’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혜택을 향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外換收支 均衡 의무가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對中 投資戰略 改善方案

우리는 앞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進出과 관련된 巨視的 環境으로서 국제경제 환경과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그리고 對中 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과업환경으로서의 制約要因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의 향후 對中 投資戰略의 基本方向은 기존의 生産效率追求型 投資보다는 內需指向型 投資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지향형 투자에는 상당한 현실적 제약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효율적인 對中 진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環境과 組織間의 關係에 관한 기존의 시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론에서 환경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情報(information)의 源泉으로서의 環境과 資源(resource)의 源泉으로서의 環境이 그것이다. 전자는 構造 컨틴전시(structural contingency)의 관점에서 보는 환경이고, 후자는 資源依存(resource dependency)의 관점이다.⁴⁹⁾

구조 컨틴전시 이론에서 조직은 하위 시스템간의 適合性(fitness)과 조직과 환경사이의 適合性에 의해 생존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구조 컨틴전시 이론에서의 조직의 효과성 혹은 성과는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전략과 구조의 구축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49) Howard E. Aldrich,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9, pp. 110.

한편 자원의존이론에서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환경으로 부터 부족한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때문에 조직은 외부 환경요소의 제약과 통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직이 생존과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외부적 제약을 가하고 있는 환경요소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신의 힘을 최대화하고 외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이상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對中 投資에는-굳이 對中 투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최근 국제경제환경 및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합한 戰略——構造의 마련과, 현재 對中 투자에서 안게되는 갖가지 제약요인들에 대한 統制方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선 環境-戰略-構造의 適合性 관점에서 우리의 對中 투자 개선방향을 찾아 보자.

첫째,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경제환경 및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합한 전략은 기존의 생산효율형 투자에서 內需指向型 投資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모든 외국기업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몇 개 기업에 대한 내수사업 허용 이후에는 투자허가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對中 내수지향형 투자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바, 기업의 현지 사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가치기능(value function)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이 수립될 때까지는 보다 신중한 경영활동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투자계약 당시부터 수출:내수 비율에서 내수비율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

50) Jeffrey Pfeffer and Gerald R. Salancik,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Model*,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8, pp. 43~54.

며, 국제시장 및 중국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노-하우를 계속 축적함과 함께, 현지에서의 장기적인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構造의 觀點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投資形態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구조 컨틴전시의 관점에서 기업의 국제사업활동의 전략-구조 적합성 문제는 이미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된 상태이다. 즉 투자 대상국(host country)이 선진국인가, 아니면 개도국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효율 지향형 투자인 경우에는 단독투자가, 그리고 내수 지향형 투자인 경우에는 합자투자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만 합자투자의 경우에도 양 파트너가 통제권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이 지배적인 통제(dominant control)를 행사하는 것이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합작투자에 수반되는 내부 관리적 어려움을 염두에 둔 것이다.⁵¹⁾

이렇게 보았을 때 내수시장을 지향하려는 우리의 對中 투자방향을 고려하면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우리의 對中 투자형태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對中 투자전략이 생산효율형 투자인점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들이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내수시장의 확보가 투자동기인 경우 현지 중국기업과의 合作 投資(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국에서는 合資投資)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對中 투자경험이 여타 경쟁국들에 비하여는 일천한 실정이고, 관련 시장정보와 노하우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지식과 노하우를 합작투자 파트너를 통해 보충하여야 한다는 사실

51) 대표적인 연구로서 Peter J. Killing, *Strategies for Joint Venture Success*, New York : Praeger, 1983. 참고.

은 당연한 논리이다.

셋째, 구조 컨턴전시의 관점에서 조직이 안게되는 모든 의사결정상의 문제는 情報의 不足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對中 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가 주요 도시마다 7~8명의 주재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작 1~2명의 주재원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市場機會의 適時捕捉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하며, 지난 40여년간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하에 놓여 있었던 우리로서는 짧은 시간내에 중국에 관한 情報空白을 메울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수집, 분석, 전달, 축적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한·중 수교후 중국에 관한 정보수집 원천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정보를 관련되는 기업, 정부, 연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국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실상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라는 반관반민적인 단일창구가 이용되었으나 양국간 경제교류 규모의 확대, 그리고 한·중 수교 등으로 최근에는 情報源(information source)이 업계를 대변하는 韓·中 民間經濟協議會, 전문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양국간 경제교류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 역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세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같이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서 유입되는 많은 정보량을 公有하는 體制 없이는 중국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불가능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체제의 구축에는 다음 두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다양한 정보원으로 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유관기관에게 질서 있게 분배할 수 있는 調整機構를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조정기구를 두지는 않더라도 民·官·研의 수평적인 정보교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民·官·研의 공동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위의 두가지 형태중 어느 것이 되었던 情報共有體制의 확립은 긴급한 당면과제임에 틀림없다.

넷째, 구조 컨틴전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對中 投資 戰略과 構造決定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로서 中國 經濟의 地方化 趨勢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지방 정부 권한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향후 우리의 對中 시장접근이 地方別 次元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금년 2월에 발표된 '10대 經濟區' 구상(주요 내용은 부록 참고)을 통해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한 경제발전 패턴을 지향하고 있어, 우리의 對中 投資도 중국의 圈域別 特性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역의 立地要素와 經濟發展 戰略에 부합되는 신중한 업종선정이 요구되며, 특히 각 권역별 현지 시장공략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地方保護主義를 고려하여 大單位 圈域別(예를 들어 화남경제권, 상해경제권, 발해만경제권, 동북경제권)로 據點化 戰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資源依存的 觀點에서 效率的인 對中 投資를 위해서 필요한 資源統制 方案에 대해서 살펴 보자.

첫째, 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交換關係를 가지게 되는 것은 역시 投入(input), 產出(output) 부문과의 교환이다. 對中 投資와 관련하여서도 가장 불확실한 환경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입, 산출부문과의 교환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래구조는 外部市場을 이용하는 방법(market), 內部市場을 이용하는 방법(internalization), 그리고 외부시장과 내부시장 양 극단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협력(coalition)사업의 형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중국내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조달이나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을 외부시장에 의존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생산요소의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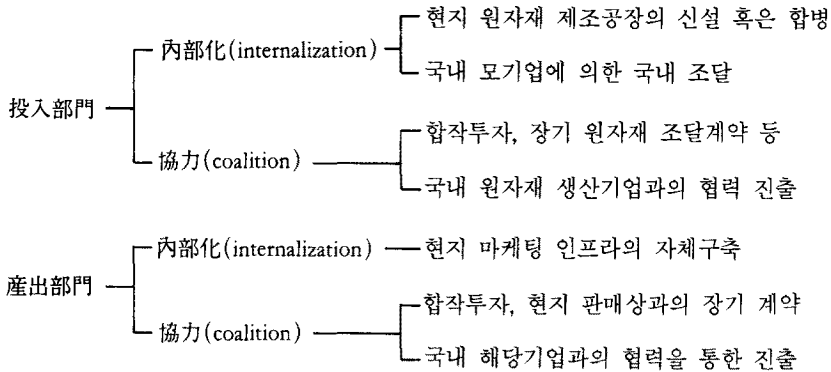
중국의 計劃經濟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외자기업은 항상 국영기업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당해 왔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내에서의 짧은 사업경험과 현지 상관습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投入, 產出 부문에서 중국내 외부시장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이같은 어려움은 금년 초 덩샤오핑의 '南巡講話'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 중국 경제의 시장화 추세로 앞으로 점차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도 가질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생소하기만 하였던 시장이 발달될 수록 外部市場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투입, 산출 부문에서 외부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價格과 生産에서의 국가통제를 대폭 줄이는 가격자유화 조치(9. 1)와 국가지정 生産割當 품목의 삭감조치(9. 27)를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이 곧바로 우리나라 對中 투자기업들을 포함한 외자기업들의 자유로운 '市場接近'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이번에 실시한 價格自由化 措置는 중국 경제의 市場化 추세라는 큰 줄기 이외에도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價格補助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부문에서도 역시 국내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生産割當 制度를 유지하겠다고 공표하였다는 점,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는 사실 등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시장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對中 투자기업의 현지 사업활동에 있어 외부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많은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투입, 산출 부문에서의 효율적 자원통제를 위해서는 외부시장의 이용이 아닌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3>과 같다.

〔도 V-3〕 投入, 産出 部門의 資源에 對한 代案의 統制方案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과 기업의 자금능력, 對中 사업경험 등에 따라 각기 가장 적합한 資源統制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투입, 산출 부문에서 內部化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불확실한 자원획득을 가장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초기 투자규모의 대규모성에 따른 리스크(risk)가 크다는 점, 그리고 協力の 방법중에서도 현지의 기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리스크의 분산이라는 잇점은 있으나 현지 기업과 신뢰(trust)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입, 산출부문에서의 제약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간의 협력체제구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中小企業(원재료)-大企業(생산), 中小企業(생산)-大企業(마케팅)의 협력체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投入物 차원에서는 국내 입지여건의 악화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과 이를 원재료로 생산하는 대기업의 협력구조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産出物 차원에서는 최근 중국이 개방하기 시작한 국내 유통부문과 개방방침이 발표된 무역업(현지 판매법인)에서

대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하여, 이를 국내 경영여건의 악화로 입지를 해외로 이전시킬 수 밖에 없는 국내 斜陽企業들과 이들 업종에서 기진출한 對中 투자기업들의 내수판매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에 기진출한 우리나라의 生産效率 追求型 對中 투자기업들은 중·미 간의 무역마찰 심화와 NAFTA의 결성 등으로 기존 해외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내수판매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적절한 창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경쟁부문에서의 제약요인을 적절히 통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시장에서는 初期進入者 優位(first-mover advantage)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全面的인 對外開放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중국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는 대개가 示範措置이며, 중국 국내의 수급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크면 클수록 그 개방의 정도는 업종과 지역의 양 측면 모두에서 특정 몇개 기업에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自動車 部門(그중에서도 승용차 시장)에서 초기에 투자한 6개의 외자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에게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초에는 일본의 닛산(Nissan)이 중국에 투자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시 수행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현상은 초기진입자 우위가 크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례로서, 중국 경제의 외형이 커지면서 개방의 범위 역시 커짐을 고려하더라도 선발 투자기업들이 누리는 선점우위는 엄청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외자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規制環境, 즉 각종 制度的 環境의 제약요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규제환경은 그 사회의 상관습이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수용 혹은 적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규제환경요소와의 갈등과 마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판시’關係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人治社會的 特性을 감안하면 현지 유력인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는 규제환경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들과 각종 현지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을 조직화하고 현재 규제기관과의 관계를 정례화할 수 있는 통로의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내 우리의 투자기업들은 북경의 대사관을 중심으로 地域別 協議體를 구성하고 있는 데, 향후에는 이러한 관계구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의 對中 민간경제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산하에 지역별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 정부(대사관)-지역별 투자기업 협의체 형식의 기존 체제를 정부(대사관)-민간(한·중 민간경제협의회)-지역별 투자기업 협의체로 확대하여 지역특유의 규제환경에 대한 우리 측의 힘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VI. 結 論

11期 3中全會(1978. 12)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채택됨으로써 시작된 중국의 외자도입은 국내 경제건설을 위한 부족재원의 조달과 선진경영기법과 기술의 도입을 주요 목적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중국의 외자도입의 주요 원천인 대외차관과 직접투자는 특정 기간의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외자도입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도입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와 하부구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던 개방 초기 기간동안은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제도와 하부구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던 개방초기 기간 동안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으나, 1983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의 제정 등 제도적 정비와 1984년 개방지역을 14개 연해항만 도시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표출되자 1984~1985년 기간 동안 중국은 제1차 외국인투자 유치붐을 맞게 되었다. 이같은 외국기업들의 對中 투자붐은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을 線에서 面으로 확대하는 1988~89 상반기 기간 동안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고 '治理整頓'의 동결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대도입, 全面的인 대외개방이 강조되기 시작한 금년부터는 바야흐로 제3차 투자붐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 상반기 동안 중국의 신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13,669건, 14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0%, 220%나 증가하는 폭발적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中國市場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對中 투자는 각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투자업종과 지역, 그리고 투자규모면에 있어 다양한 분포를 나타

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대 규모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市場追求型 投資가 늘고 있다.

日本은 생산기지 이전 형식의 노동집약형 경공업 투자가 과거 NIEs 와 ASEAN 국가로 부터 중국으로 선회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면서, 투자동기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추구형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적으로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 이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臺灣은 투자동기라는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대만내 입지여건 악화에 따라 생산효율 추구를 위한 수출지향형 투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華南經濟圈의 본격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3차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화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대만의 對中 투자는 양국간 화해 분위기의 조성과 이에 따른 투자여건의 개선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9년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투자는 매년 매우 빠른 추세로 신장되어 왔으며, 勞動集約的 輕工業 中心, 單獨投資 選好, 渤海灣 沿岸과 東北 3省에의 偏重 등 세가지의 특징적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내 개혁·개방의 가속화 추세와 함께 금년 8월 한·중 수교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투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 것으로 보인다. 우선 對中 진출 동기에 있어 과거의 생산효율 추구형 일변도를 벗어나 시장추구형, 자원개발형 투자 등으로 다양화 될 것이며, 중·소 규모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투자패턴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보았을 때 금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對中 투자는 그 특성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 직접적인 동기는 물론 금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확대 도입 움직임과 전면적인 대외개방 추세이다.

중국의 이같은 개혁·개방 가속화 움직임의 내용과 최근 국제질서질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향후 우리의 對中 투자의 기본방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市場追求型 投資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시장추구형 투자에는 아직도 상당한 현실적 제약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내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현실적 제약이 결국 對中 투자기업을 둘러싼 현지 환경상의 제약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對中 투자기업은 향후 내부적으로 이같은 환경에 적합한 전략과 구조를 설정하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요소의 통제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前者의 관점에서는 시장추구형 투자의 활성화, 투자형태로서 합자투자에 대한 관심증대, 지방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거점화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對中 투자 관련 정보 공유체제의 구축 등이, 그리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투입, 산출물 부분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국내 기업들간의 협력체제 구축, 경쟁요인의 통제를 위한 선점전략의 추진, 규제환경의 통제를 위한 현지 인맥 구축과 對규제기관 협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考資料〉

〈文獻 資料〉

- 金時中,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 展望』, KIEP, 정책연구 91-07, 1991. 4.
- 金時中, 閔充基, 柳在元, 『海外 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KIEP, 정책연구 92-07, 1992. 9.
- 金弘錫, 金美淑, 『中國의 對西方 外資導入 現況과 問題點』, 産業研究院, 研究報告書 제204호, 1990. 9.
- 白權鎬,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投資戰略”, 『中國經濟의 市場化 趨勢와 韓·中協力(第1回 北方進出前略 세미나 資料)』, 北方地域센터, 1992.7.
- 徐相祿,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 戰略』, KIEP, 정책연구 90-10, 1990.
- 申泰容 外, 『中國交易總覽(投資編)』, 産業研究院, 1988. 9.
- 李文炯, 『中國·臺灣間 統一政策과 經濟協力 展望』, 産業研究院, 研究報告書 제226호, 1991. 5.
- 産業研究院, “활발해지는 아시아 지역의 小經濟圈 형성 움직임”, 『産業經濟情報』, 제1330호, 1992. 3. 18.
- 李學圭, 曹永三, 『中國의 對外經濟政策 變化와 韓·中 經濟交流』, 産業研究院, 1992.
- 全經聯, 『韓國製造業의 海外投資 經營成果 調查』, 1991.
- 鄭永祿,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KIEP, 정책연구 92-11, 1992.
- 郭樹清, 韓文秀 著, 『中國GNP의分配和使用』, 北京, 中國人民出版社, 1991.
- 馬洪, 孫尙清, 『中國經濟形勢與展望(1991~1992)』, 北京, 中國發展出版

- 社, 1992.
- 王政雄, “大陸投資的經營戰略”, 中華經濟研究院, (大陸投資政策與策略研討 자료: 1991. 9. 17~18).
- 劉國光 編, 『1992年 中國: 經濟形勢分析與豫測』,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 中國國際廣播出版社 編, 『中國改革大辭典』, 北京, 1992.
- 小島 清, 『日本の 海外直接投資 — 經濟學的 接近』, 東京, 文眞堂, 1985.
- 今井理之, “對外債務の現状と課題”, 『中國經濟』(JETRO), 東京, 1991년 6월 호.
- 武見敬三, “中國の對臺灣政策”, 『6.4天安門事態後の中國・ANIEs間交流』, JETRO, 1990. 8.
- 若林正丈, “臺灣から見た80年代中臺交流”, 『6.4天安門事態後の中國・ANIEs間交流』, JETRO, 1990. 8.
- 日本輸出入銀行, “1991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報告”, 『海外投資研究所報』, 1992年 1月 號.
- 三菱總合研究所 編, 『中國合併企業一覽』, 東京, 1991년판.
- JETRO, 『中國: 經濟調整終了と課題 — 加速化する改革開放』, 東京, 1992.
- JETRO, 『華南經濟圈 — 香港でみるアジアボ-ダレス時代と中國』, 東京, 1992.4.
- JECTO, 『日中合併- 10年の實積と解決すべき課題』, 東京, 1991.
- Aldrich, Howard E.,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9.
- Baker, James A., “America in Asia”,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 Buckley, Peter J., “A Critical View of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 Peter J. Buckley and Mark Casson (ed.),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The MacMillan Press, 1985.
- Killing, Peter J., *Strategies for Joint Venture Success*, New York: Praeger,

1983.

Kao, Lang., "A New Relationship Across the Taiwan Strait", *Issues & Studies*, April 1991.

Pfeffer, Jeffrey and R. Salancik,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Model*,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8.1.

Hollis B. Chenery and Alan M.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6, pp. 679~733.

Porter, Michael E.,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A Conceptual Framework" in Michael E. Porter(ed.),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Yen Tzung-ta, "Taiwan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and Its Impact on Taiwan's Industries", *Issues & Studies*, May, 1991.

〈統計 및 定期刊行物〉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판.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編纂委員會,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각년도 판.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외환업무자료 92-B-3, 1992.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1992년 6. 30. 현재)』, 1992.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 技術合作 統計月報』, 臺北, 각 월호.

China's Statistics Information Consultancy Service Center, *China Latest Economic Statistics*, Aug., 1992.

大韓貿易振興公社, 『北方通商情報』(월간), 각 호.

地域情報센터, 『北方經濟』(월간), 각 호.

日本貿易振興會, 『中國經濟』(月刊), 1990년 4월호, 1991년 7월호.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國際貿易』(週刊), 각 호.



附 錄



〈부표 1〉 中國의 外債 추이(1985~91)

(단위:억 달러, %)

	總外債	中長期	構成比	短期	構成比	債務率 (A)	D S R (B)	총외채 G N P
1985	158.3	94.1	59.0	64.2	41.0	53.4	2.6	4.8
1986	214.8	167.1	77.8	47.7	22.2	70.0	19.0	7.6
1987	302.0	244.8	81.0	57.2	19.0	75.2	12.7	9.9
1988	400.0	326.9	81.7	73.1	18.3	84.4	6.3	10.6
1989	413.0	370.3	89.7	42.7	10.3	82.0	8.0	9.8
1990	525.5	457.8	87.1	67.7	12.9	89.3	8.5	14.2
1991	605.6	502.6	83.0	103.0	17.0	87.0	8.0	16.5

註: (A) 債務率 = 총외채/재화 및 용역수입

(B) 元利金 償還率 = 원리금 상환액/재화 및 용역수입

資料: 『對外經濟貿易年鑑』, 1991/92. P. 989 및 *China Daily*, 1992년 8월 22일자.

『中國統計年鑑』, 1992년판.

〈부표 2〉 省別 直接投資 導入 推移(契約 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1979~87		1988		1989		1990		1991		1988~9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廣東省	5,679	8,889	2,706	2,242	2,438	2,438	3,042	2,690	4,554	4,905	12,740	12,275
福建省	1,023	822	813	463	872	903	1,043	1,162	1,219	1,449	3,947	3,977
海南省	291	299	441	270	375	267	252	129	470	394	1,538	1,060
廣西自治區	287	384	122	113	77	25	114	125	190	93	503	356
浙江省	153	159	152	113	184	84	294	133	585	317	1,215	647
江蘇省	194	220	247	302	277	193	393	286	1,138	737	2,055	1,518
上海市	291	1,843	219	333	199	360	201	375	363	430	982	1,498
山東省	126	336	203	260	240	178	366	233	801	655	1,610	1,326
北京市	261	1,650	148	143	185	79	241	118	724	286	1,298	626
天津市	230	243	94	110	97	84	129	132	354	191	674	517
河北省	103	98	92	187	73	63	110	86	289	191	564	527
遼寧省	212	779	272	192	271	301	371	494	575	540	1,489	1,527
吉林省	45	95	25	9	44	23	52	21	121	39	242	92
黑龍江省	97	103	49	58	60	47	76	27	230	107	415	239
山西省	19	6	20	15	19	12	25	12	53	27	117	66
安徽省	54	32	35	11	34	6	53	19	104	37	226	73
江西省	66	74	35	18	24	5	54	29	162	56	275	108
河南省	78	225	38	23	36	17	50	21	154	127	278	188
湖北省	78	56	53	78	70	48	99	39	228	115	450	280
湖南省	99	67	22	14	37	19	45	27	153	50	257	110
四川省	73	141	34	25	33	21	134	101	232	123	433	270
陝西省	110	1,029	13	14	23	31	24	11	54	21	114	77
地域 全體	9,675	17,651	5,886	5,064	5,720	5,238	7,273	6,368	12,906	10,983	31,785	27,653

註: 1) 전체 직접투자도입 중에서 中央 소속기업의 직접투자도입을 제외한 것임.

資料: 1979~87년은 『對外經濟貿易年鑑』, 1988년판. 1988~90년은 『對外經濟貿易年鑑』, 각번호, 1991년 자료는 『國際商報』, 1992년 4월호.

〈부표 3〉 沿海開放都市와 經濟特區의 直接投資 導入 推移

(單位: 件, 백만 달러)

	1985			1987			1989		
	件數	契約額	利用額	件數	契約額	利用額	件數	契約額	利用額
大 連	50	142.3	14.3	31	87.2	49.9	144	209.1	80.6
秦皇島	11	26.0	1.4	6	21.6	2.2	23	19.9	6.9
天 津	88	68.2	32.5	50	14.4	127.4	97	84.6	72.4
煙 台	8	7.8	1.7	15	7.8	4.6	63	31.7	11.4
青 島	10	34.7	2.3	14	18.8	14.0	44	31.9	58.0
連運港	5	3.6	0.5	4	2.7	2.6	6	6.0	7.4
南 通	13	29.4	1.3	12	19.9	11.7	21	19.1	6.8
上 海	96	761.8	102.4	76	338.3	212.0	199	395.8	422.1
寧 波	12	4.7	3.1	13	43.4	4.3	64	63.0	17.6
溫 州	4	0.7	0.03	4	0.7	1.0	28	9.0	4.7
福 州	70	43.6	15.1	56	30.5	14.6	214	151.6	50.4
廣 州	297	682.6	102.2	134	218.3	55.7	292	401.0	134.3
湛 江	89	109.0	22.5	33	30.6	15.6	49	26.3	25.6
北 海	15	4.9	1.8	13	18.5	1.4	7	1.3	1.8
小計	768	1,919.3	301.1	461	852.7	517.0	1,251	1,414.3	901.0
심 천	282	793.2	179.9	310	566.8	273.8	706	483.3	292.5
珠 海	137	127.9	52.6	95	42.1	33.8	225	128.4	53.3
汕 頭	106	60.3	14.6	66	34.1	36.0	285	198.1	97.7
廈 門	105	242.0	73.3	50	56.7	17.5	225	769.1	209.8
海南省	85	55.6	20.9	25	13.6	8.9	375	266.9	95.0
小計	715	1,279.0	341.3	546	713.3	370.0	1,816	1,845.8	748.3

〈부표 3 계속〉

	1990			1991		
	件數	契約額	利用額	件數	契約額	利用額
大連	185	323.8	201.3	251	221.4	261.1
秦皇島	15	6.9	19.4	34	20.0	7.3
天津	129	163.7	83.2	354	196.6	93.9
煙台	82	64.7	30.2	186	186.0	52.9
青島	63	66.5	45.9	140	165.2	46.5
連運港	7	2.6	1.4	21	30.1	1.5
南通	33	49.6	10.2	86	70.2	20.9
上海	201	374.6	1,203.4	365	450.0	164.2
寧波	88	53.7	22.0	184	174.6	26.8
溫州	41	10.8	2.5	57	18.8	7.7
福州	233	273.7	101.9	286	296.0	138.1
廣州	389	471.8	180.9	571	706.4	231.6
湛江	59	50.5	16.2	91	66.6	22.3
北海	20	36.7	9.3	23	12.2	4.1
小計	1,545	1,949.7	1,927.8	2,649	2,615.0	1,078.9
심천	757	679.0	389.9	951	1,086.1	398.7
珠海	385	255.8	69.1	547	517.5	134.3
汕頭	338	247.4	123.9	590	514.5	197.7
廈門	262	485.6	72.7	213	519.8	132.6
海南省	252	128.8	100.6	470	393.7	176.1
小計	1,994	1,796.6	756.2	2,771	3,031.5	1,039.4

資料: 『中國統計年鑑』, 1986~1992年 版.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1986~1991/92.

『海南省經濟統計年鑑』, 1992년 版.

『中國經濟新聞』(北京經濟日報社), 1992년 6월 29일자.

〈부표 4〉 業種別 直接投資 도입 현황 I

(단위:건, 만 달러, %)

業種	1979~82		1983		1984		1985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農·林·牧· 漁·水利業	88 (9.7)	37,916 (8.3)	60 (13.3)	1,777 (2.4)	113 (6.1)	4,937 (1.9)	184 (6.0)	6,599 (1.2)
鑛工業	315 (34.7)	108,749 (23.7)	134 (29.6)	9,506 (13.0)	595 (32.1)	74,232 (28.0)	1,652 (53.8)	201,728 (36.2)
建築業	4 (0.4)	175 (0.0)	38 (8.4)	5,669 (7.8)	112 (6.0)	6,785 (2.6)	190 (6.2)	13,252 (2.4)
交通運輸	169 (18.6)	29 (0.0)	33 (7.3)	5,994 (8.2)	96 (5.2)	8,220 (3.1)	131 (4.3)	10,568 (1.9)
商業·料食· 倉庫業	254	64,127 (14.0)	73 (16.2)	3,972 (5.4)	213 (11.5)	11,001 (4.2)	336 (10.9)	52,654 (9.5)
不動産· 公共서비스業	2	106,167 (23.1)	35 (7.7)	9,489 (13.0)	126 (6.8)	99,947 (35.4)	401 (13.1)	227,058 (24.9)
衛生·體育· 社會福祉	-	-	-	-	-	-	17 (0.6)	5,152 (0.9)
教育·文化· 藝術	-	-	16 (3.5)	357 (0.5)	-	-	16 (0.5)	3,192 (0.6)
科學研究· 技術서비스	-	-	-	-	-	-	22 (0.7)	663 (0.1)
金融·保險業	1 (0.1)	54 (0.0)	-	-	-	-	3 (0.1)	6,310 (0.7)
其他	76 (8.4)	141,554 (30.9)	63 (13.9)	36,293 (49.7)	601 (32.4)	65,926 (24.9)	117 (3.8)	39,975 (5.4)

〈부표 4 계속〉

業種 \ 年度	1986		1987		1988		1989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農·林·牧· 漁·水利業	75 (5.0)	6,321 (2.2)	99 (4.4)	12,496 (3.4)	234 (3.9)	20,886 (3.9)	183 (3.2)	12,138 (2.2)
鑛工業	1,022 (68.2)	78,516 (27.7)	1,811 (81.1)	177,562 (47.9)	4,996 (84.0)	402,146 (75.9)	5,107 (88.4)	466,366 (83.3)
建築業	27 (1.8)	5,258 (1.9)	30 (1.3)	5,467 (1.5)	73 (1.2)	11,881 (2.2)	58 (1.0)	6,695 (1.2)
交通運輸	22 (18.6)	3,334 (0.0)	41 (1.8)	1,641 (0.4)	148 (2.5)	9,116 (1.7)	49 (0.8)	5,211 (0.9)
商業·料食· 倉庫業	60 (4.0)	10,013 (3.5)	40 (1.8)	2,940 (0.8)	86 (1.4)	6,424 (1.2)	72 (1.2)	6,735 (1.2)
不動産· 公共서비스業	212 (14.2)	161,731 (57.1)	142 (6.4)	147,062 (39.7)	218 (3.7)	53,016 (10.0)	176 (3.0)	52,379 (9.4)
衛生·體育· 社會福祉	4 (0.3)	1,637 (0.6)	7 (0.3)	1,145 (0.3)	17 (0.3)	528 (0.1)	10 (0.2)	3,564 (0.6)
教育·文化· 藝術	6 (0.4)	4,071 (1.4)	3 (0.1)	1,422 (0.4)	19 (0.3)	4,444 (0.8)	20 (0.3)	723 (0.1)
科學研究· 技術서비스	5 (0.3)	24 (0.0)	5 (0.2)	76 (0.0)	19 (0.3)	739 (0.1)	10 (0.2)	359 (0.1)
金融·保險業	—	—	—	—	2 (0.0)	1,167 (0.1)	—	—
其他	65 (4.3)	12,619 (4.5)	55 (2.5)	21,073 (5.7)	133 (2.2)	19,359 (3.7)	94 (1.6)	5,806 (1.0)

〈부표 4 계속〉

業種	1990		1991		1979~91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農·林·牧· 漁·水利業	223 (3.1)	12,225 (1.9)	325 (2.5)	21,996 (1.8)	1,584 (3.8)	137,201 (2.6)
鑛工業	6,591 (90.6)	556,918 (84.4)	11,632 (89.6)	962,296 (80.3)	33,855 (80.6)	3,038,019 (58.0)
建築業	43 (0.6)	18,108 (2.7)	77 (0.6)	13,420 (1.1)	652 (1.6)	86,710 (1.7)
交通運輸	51 (0.7)	3,646 (0.6)	69 (0.5)	9,495 (0.8)	640 (1.5)	57,254 (1.1)
商業·料食· 倉庫業	96 (1.3)	10,660 (1.6)	236 (1.8)	17,424 (1.5)	1,381 (3.3)	185,950 (3.6)
不動産· 公共서비스業	158 (2.2)	45,247 (6.9)	401 (3.1)	150,371 (12.6)	2,123 (5.1)	1,046,467 (20.0)
衛生·體育· 社會福祉	15 (0.2)	3,798 (0.6)	28 (0.2)	6,402 (0.5)	100 (0.2)	22,226 (0.4)
教育·文化· 藝術	15 (0.2)	506 (0.1)	50 (0.4)	5,599 (0.5)	145 (0.3)	20,314 (0.4)
科學研究· 技術서비스	24 (0.3)	3,195 (0.5)	66 (0.5)	1,855 (0.2)	151 (0.4)	6,911 (0.1)
金融·保險業	—	—	—	—	6 (0.0)	11,385 (0.2)
其他	57 (0.8)	5,308 (0.8)	94 (0.7)	8,851 (0.7)	1,341 (3.2)	346,764 (0.7)

註: ()안은 구성비임.

資料:『對外經濟貿易年鑑』, 각 년도

〈부표 5〉 일본기업의 업종별 對中 投資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업종	1987		1988		1989		1990		1974~9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製造業	58	70,136	117	202,679	85	206,268	113	160,976	503	716,718
식료품	11	3,856	20	16,327	6	12,877	8	8,979	79	60,261
섬유	8	3,751	23	16,009	23	11,118	40	20,957	108	55,074
목재·펄프	2	602	6	3,875	3	1,444	3	1,341	23	10,796
화학	8	4,979	8	8,570	11	11,412	6	11,658	47	53,832
철·비철금속	6	7,352	8	10,004	5	6,044	8	13,863	35	43,868
기계	4	2,106	11	12,024	6	42,052	6	50,098	37	112,023
전기	11	43,308	15	101,129	14	80,076	11	22,173	64	256,696
수송장비	—	—	2	4,946	2	1,205	2	1,355	9	8,108
기타	8	4,179	24	29,792	15	40,037	29	30,549	101	116,056
非製造業	43	1,156,362	53	92,601	40	231,086	51	185,299	345	2,040,460
농림업	5	1,875	8	2,835	1	279	4	1,454	21	7,611
수산업	6	15,998	11	15,282	3	5,716	4	4,582	36	46,238
광업	—	—	—	—	1	4,351	7	20,156	11	30,471
건축업	3	480	—	250	1	3,846	1	7,000	13	14,334
상업	9	4,507	11	7,406	7	8,888	5	3,003	66	54,484
금융·보험	—	—	—	—	1	10,240	1	2,500	3	14,140
서비스·호텔	13	79,268	20	65,037	18	174,325	25	136,541	149	728,327
운수업	—	—	—	104	3	15,000	1	658	13	23,307
부동산업	6	60,852	3	1,685	5	8,437	3	9,402	29	106,117
기타	1	993,377	—	—	—	—	—	—	4	1,015,427
總計 ¹⁾	101	1,226,499	171	296,234	126	438,193	165	349,001	859	2,823,102

註: 1) 支店 및 不動産 투자를 포함한 것임

資料: 日本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부표 6〉 대만기업의 업종별 對中 투자(1991~92. 5)

(단위: 건, 천 달러)

業 種	1991		1992. 1~5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製造業	217	168,453	91	57,155
음식료품	19	19,308	10	10,465
방직업	5	13,631	2	244
의류	26	13,192	9	3,917
나무, 竹, 藤제품	15	6,301	7	4,782
종이, 종이제품	5	1,428	2	594
피혁, 모피제품	6	2,918	4	1,047
고무, 플라스틱	58	54,428	16	7,515
화학	9	2,977	5	3,543
비금속광물제품	12	5,714	6	2,716
1차금속 및 금속제품	13	9,704	18	10,853
기계, 계측기기	6	8,004	2	362
전자, 전기 제품	42	31,568	10	11,117
非製造業	20	5,705	12	9,739
총 허가	237	174,158	103	66,894

資料: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月報』, 1991년 12월호 및 1992년 5월호.

〈부표 7〉 遼寧省과 山東省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 추이

(단위: 건, 만 달러)

	1989		1990		1991		1989~91		구성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遼寧省 전체	269	27,979	365	46,703	575	54,000	1,209	128,682	100.0	100.0
홍콩	138	7,849	181	33,441	235	29,127	554	70,417	45.8	54.7
日本	64	14,823	68	2,818	132	29,438	264	47,079	21.8	36.6
美國	21	2,416	28	2,176	44	4,760	93	9,352	7.7	7.3
臺灣	18	577	36	1,119	56	6,380	110	8,076	9.1	6.3
韓國	6	324	21	1,530	58	4,549	85	6,403	7.0	5.0
山東省 전체	240	17,855	366	23,283	801	65,481	1,209	128,682	100.0	100.0
홍콩	144	9,140	190	8,650	393	32,261	554	70,417	45.8	54.7
日本	25	1,257	31	2,551	49	4,156	264	47,079	21.8	36.6
美國	35	3,407	47	2,250	96	8,602	93	9,352	7.7	7.3
臺灣	10	170	48	3,165	124	10,037	110	8,076	9.1	6.3
韓國	5	590	12	2,207	77	4,751	85	6,403	7.0	5.0

資料: 『遼寧省經濟統計年鑑』, 1990~92년판, 『山東省經濟統計年鑑』, 1990~92년판.

〈부표 8〉 中國의 10大 經濟區 구상

經濟區	省·自治區	重點 育成 分野
東北經濟區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內蒙古自治區의 東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의 최대 공업기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 임업, 목축업의 진흥을 도모.
華北渤海 經濟區	北京市, 천진시, 河北省, 山東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양식업과 면화생산의 확대를 목표로 함.
長江델타 經濟區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산업을 軸으로 가공업을 발전시켜 최대의 대외개방지역을 형성함. • 금융·무역서비스의 충실을 도모.
南方沿海 經濟區	廣東省, 廣西壯族自治區, 福建省, 海南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지향형 경제를 육성, 수출기지화를 도모.
黃河中流 經濟區	山西省, 陝西省, 河南省, 內蒙古自治區의 中西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생산을 발전시켜 최대의 에너지, 중화학공업을 육성
長江中流 經濟區	湖南省, 湖北省, 江西省, 安徽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량과 용수수요가 큰 공업을 중심으로 「長江沿岸經濟回廊」을 형성.
黃河上流 經濟區	甘肅省, 青海省, 寧夏回族自治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하의 水位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에너지, 원자재 생산기지로 육성.
長江上流 經濟區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에너지 소비형의 중화학공업기지 육성.
新疆經濟 開發區	新疆위구르自治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생산을 軸으로 석유화학공업기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농업, 목축업도 육성.
티벳特殊 經濟區	티벳自治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을 통해 경제지체 해소를 도모하고 근대적인 경제체계의 형성을 목표로 함.

* 10대경제구 구상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작년도 조사연구보고서에서 밝힌 것임.

中國 外國人直接投資誘致 政策의 變化와 韓國의 對中投資

1992年 12月 15日 印刷

1992年 12月 2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編輯人 姜 興 求

發 行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附 設 地 域 情 報 中 心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1洞 159-1

韓國綜合貿易센터빌딩 21層

印 刷 오름시스템(주) 273-7011
